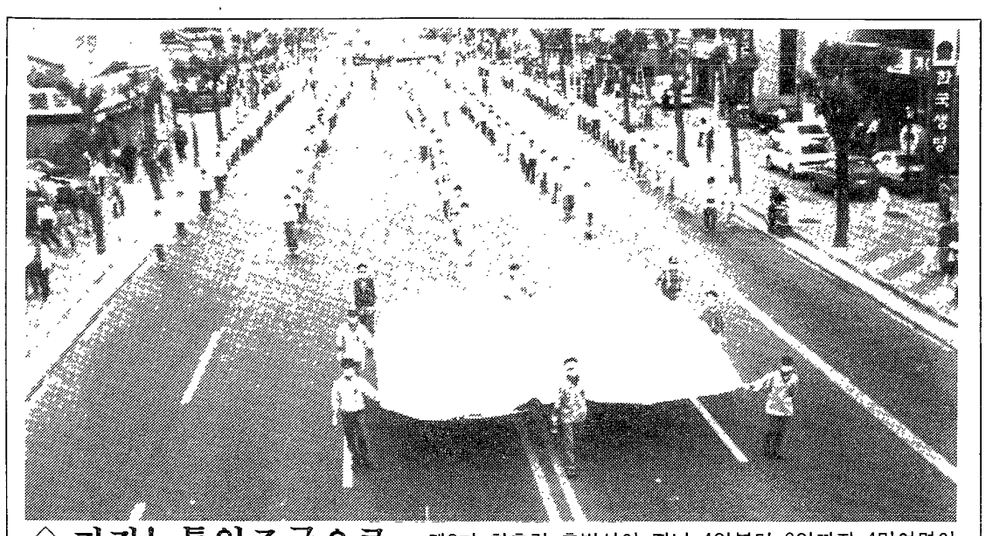
東大新聞

제 1174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5년(불기2539년) 5월 10일 (수요일) 1

금주일언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도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며, 재앙이 쫓아와 스스로를 불태워 그 죄가 볼길처럼 왕성하게 된다 〈법구경·우암품 241절〉

발행인 송석구 / 편집인 겸 주간 송재운 / 부국장 이준익 / 편집장 김소영

편 낸 곳 :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260-349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770-2057)



◇ 가자! 통일조국으로…제3기 한총련 출범식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4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 경북대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5면〉 사진은 마지막날인 6일 시민학생한마당. 〈박대용 기자〉

대학종합평가 1년 연기 거론
어설픈 '합격'보다 '완벽'추구

"내실있는 학교발전 이룩하자" 교무위원회의에서 논의

오는 11월 본교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던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이하 종합평가)의 시행시기가 1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평가 1년 연기 논의는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올해 종합평가를 받는 것보다 학술문화관이 완공되고 교과과정 개편 등 지금보다 좋은 교육여건을 갖춘 내년도에 받는 것이 보다 좋은 점수로 평가 받을 수 있다"는 결정아래 자체평가 기획단에 보고된 후 어제(9일)열린 교무위원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대학종합평가는 단순히 점수에 의한 '합격' '불합격'만을 판정하고 평가 대학을 점수에 따라 일렬로 세운다"며 "종합평가에 합격만 하려고 애를 쓰면 전반적으로 대학이 균형있는 발전을 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연기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과거 3년치를 평가하므로 올해 추진되는 LAN시스템 설치, 외국어 교육 강화, 교육과정 개편, 학술문화관 완성 등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현재 추진중인 학교발전계획들이 평가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며 내년으로 종합평가를 연기하는 것이 어설픈 '합격'판정으로 가는 것보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교 종합평가 1년연기 논의에 대해 총학생회 한 관계자는 "끼어맞추기식의 준비로 합격판정을 받는 것 보다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보다 내실있는 평가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평가 연기는 오늘(10일)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평가연기 요청이후 빠른시일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 설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하는 제도로 대학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학과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학과평가인정제로 구분되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의해 실시된다.

이 중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학을 학부와 대학원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학부는 ①교육, ②연구, ③사회봉사, ④교수, ⑤시설·설비, ⑥재정·경영의 6개 영역에 걸쳐 평가하는데 작년에 서울대, 포항공대 등 7개대학이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본교는 강원대, 충북대 등 4개 국립대학및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등 14개 사립대학과 함께 올해 평가를 받기로 결정되었었다.

이에 본교는 지난 93년 12월에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항목 검토, 자료수집 및 분석을 거쳐 94년 2월과 7월에 제1차, 2차 보고서를 발행했다. 또한 94년 12월에 학생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2월 학과장회의에서 자체평가 경과 보고 및 평가에 대한 준비를 해 왔다.

한편, 평가 준비 과정중 여러 대학들이 무리한 등록금 인상, 교수채용의 무리수(어떤 대학은 한학기에 2백명까지도 뽑는 경우가 있었다) 등 대학의 과다한 업무부담과 준비기간의 촉박성으로 평가 대상 대학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평가 본연의 뜻을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가운데 본교의 종합평가 1년 연기 논의는 "예정대로 평가를 받아도 합격할 수 있으나 보다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기 위한 일"이라며 내실있는 대학발전을 위한 대단히 성숙하고 소신있는 모습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곽주영 기자〉

21세기 기획단 발족

제3캠·불교종합병원 건립 계획 추진

제3캠퍼스·불교종합병원 건립 등을 추진할 '21세기 기획단'이 지난 13일 회칙 통과를 거쳐 어제(9일) 기획단원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됨으로써 공식적으로 발족됐다.

'21세기를 대비하여 본교의 장단기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실천방안을 연구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다'라는 목적아래 발족된 본 기획단은 위원장에 정병조(국민윤리학), 위원에 김상규(토목공학), 권기종(불교학), 송재운(국민윤리학), 한태식(선학), 홍승기(무역학), 이원부(정보관리학), 이병철(경영학), 박선영(교육학)교수와, 간사에 손상길 교무부처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1세기 기획단이 연구, 추진하고 있는 내용중 오는 9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는 수익사업 연구, 신학풍조성 운동 실천 방안 등이 있다.

수익사업 연구의 세부내용으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산, 학 협동연구과제 선정(기업체 연구비 유치) △모금운동 방향, 방법 연구 등이 있고 신학풍조성 운동 실천 방안에는 △계획분야의 실천 방안 △의식전환 교육 △학생지도 문제 등의 내용이 잇다.

또 △제3캠퍼스 건립 △불교종합병원건립 △해외 분교 설치 △직제(조직) 연구 등의 중, 장기 종합발전계획안을 내년 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고 △대학경영진단 분석(인사관리, 사무, 행정관리 상태, 수입, 지출 분석, 재산관리 상태) △진단분석자료를 토대로 경영합리화 방안 모색 등의 대학경영 합리화 방안과 △행정=각 부서업무 쇄신, 개선 △교육=환경개선방법, 교과과정 △연구=연구활성화(교수 발전제 포함), 국내교류, 국제교류 등의 학사행정의 쇄신방안을 내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사장·총장 일본 출장

유학생교류확대차 자매교 방문

송석구총장은 오늑원이사장과 유학생교류확대 차원에서 오늘(10일)부터 일본을 방문한다.

방문일정은 △10일=경도 불교대학, 동창회모임 참석 △11일=용곡대, 정토종 종무청(경도시내), 지은원(총본산) △12일=대정대 △13일=고마자와, 전산원 자매학교, 후원회모임 참석으로 14일 귀국한다. 이번 방문에는 홍윤식(역사교육)교수가 수행한다.

청화스님 초청법회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어제 9일 오후 4시30분 청화스님을 초청하여 '선과 정토의 세계'를 주제로 법회를 가졌다.

청화스님은 특히 이번 법회를 마친 후 3년간 수행을 위해 속세와 관계를 갖지 않을 예정이다.

전 법정대학장, 도서기증

형법·세법 관련 서적 등

본교 법정대 학장을 역임했던 염정철 교수가 지난 4월20일 형법관련 서적인 형법분석의 4백50권을, 역시 법정대 학장을 역임했던 고 안윤출교수 유족이 지난 3월29일 세법관련 서적인 판례총람외 1백79권을 본교 도서관(관장=정병조·국민윤리학)에 기증했다.

도서관은 이후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봉축 연등 보시금 1천만원

정각원, 개교기념사업본부에 기증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봉축 연등의 보시금 1천만원을 1백주년 기념사업 본부에 기증했다.

기증식은 지난 9일 오후4시30분부터 시작한 청화 큰스님 초청법회 중에 있었으며 송총장이 정각원장으로부터 기증받았다.

신 규 직 원 인 사

총무처(처장=염준근·통계학)는 신규직원인사를 지난 1일자로 단행했다.

(서울캠퍼스)

△변재덕=기획조정실 공보부 △박혁상=교무처 교무과 △김규환=교무처 학적과 △신하균=학생처 장학과 △변민우=총무처 총무과 △서남석=총무처 경리과 △이권학=사범대학 교학과 △권우성=개교1백주년기념사업본부 △윤의선=중앙도서관 사서과

(경주캠퍼스)

△김성규=교무처 교무과 △김봉민=사무처 관재과 △김영곤=사무처 관재과

보 리 수

무정(無情)

해마다 가정의 달인 5월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날이니,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가 많다. 그런데 이와같이 어린이, 부모, 스승들을 위해서 특별히 날자를 정해서 이를 기리는 것은 사실 그 이면에는 이들, 즉 어린이나 부모 스승에 대해서 평소에 잘 대접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유독 이날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서 부모다운 행동이나 자식다운 노릇, 제자다운 행실을 보이자는 마음가짐일 것이다. 그러나 훌륭한 부모는 굳이 이 날이 아니라도 평상시에 자식한테 소홀함이 없으며 효성스런 자식이나 뛰어난 제자는 이날이 아니라도 부모님이나 스승께 항상 안부를 묻거나 기대에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많이 피폐되어 있다. 그러한 근본원인을 찾아보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 개인들의 무분별한 감정(感情)때문이 아닌가 한다. 본래 감정이란, 마음이 외부의 현상과 접촉하면 거기에 쉽게 몰들 생각을 일으키는 감각작용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마음(心)을 가지고 태어나는데(生) 이것을 일컬어서 성(性)이라고 하며, 이에는 본성이나 체성, 성품 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心)이 현상계가 표출하고 이는 다섯가지의 색깔, 즉 청·황·적·백·흑에 물들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을 정(情)이라고 하는데 이는 맨처음의 청(靑)색만을 따와서 이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써 나머지 색깔에도 역시 우리의 마음이 물든 것을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불교에서는 이렇게 물들 감정을 가지면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존재를 통틀어서 중생(衆生)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중생이라는 말이 대부분 유정(有情) 곧 '정(情)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중생된 삶의 표본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그만큼 감정이 강하므로 안정된 생활보다는 오히려 굴곡이 심한 삶을 살아갈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쓸데없이 함부로 아무데나 정을 주는 다정(多情)도 사실은 병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보살이나 부처를 불교에서는 무정(無情)한 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누구에게나 정을 주지 않는 매정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올바른 일에는 어떤 중생에게도 끝없이 정을 주지만 대신 부정한 일에는 어느 사정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사사로운 일에 얽매어서 정을 결코 주지 않는 평등한 인격의 소유자를 이렇게도 부르는 것이다.

이와같이 정을 줄때는 주고 안줄 적에는 안주는 마음을 분명하게 갖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내 핏줄인 자식이요, 내 분신과 같은 제자라면 잠시의 감상 때문에 쉽게 이에 묻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섣불리 정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정을 주고 나면 그 뒤에 금방 따라오는 실망이나 슬픔, 더 나아가서 한때의 기쁨 등이 이에 비례해서 오기 때문이다.

행사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가 무정한 사람이 되자고 하면 역설적인 표현일런지 모르지만 진정 우리 자신과 이 사회, 나아가서 훌륭한 가정을 이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냉정한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 만

불문대 불교학과 교수

5월은 은혜와 감사의 달

♬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재학생 모교방문실시 안내

청년의 패기와 추억이 있는곳! 출신 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 뵙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후배와 정다운 대화의 자리를 만든다면 더욱 뜻깊은 방문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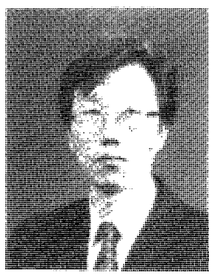
1. 대상고교: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고등학교 및 지방소재 희망고등학교
2. 방문기간:'95. 5. 15-5. 31
3. 신청기간:'95. 5. 9-5. 20
4. 신청장소:학생과
5. 신청방법:고교동문회 또는 희망자가 학생과에 신청서 제출

※방문에 따른 교통비와 기념품은 학교에서 제공하니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기 바랍니다.

동대신문사

동/문/칼/럼

지방자치와 주민의 위상



이 기 우

6·27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선출하게 됨으로써 임명제 시장으로 상징되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는 지방분권적인 권력의 이동을 가져오게 된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권력의 이동이상으로 주민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를 가져온다.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행정에서 주민의 역할은 국가의 지시를 충실히 복종하는 역할에 그쳤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는 이기주의와 향락주의를 조장하여 왔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무엇보다도 관료주의를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극복하려는 행정개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문제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독일의 지방자치의 아버지인 쉬타인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향락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윤리적인 완성을 가져오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현실에서 국민의 지위는 어떠한가? 권력자가 진정으로 국민을 주권자로 생각하는가? 행정부는 국민들은 어리석고 잘못을 범하기 쉬우니 행정부가 일일이 계도하고 지도해야할 대상이라는 생각에서 끝없이 국민을 지도하려고 든다.

버스정류장에 "차례차례 탑시다"로부터 시작하여 길거리는 각종의 현수막과 계몽성 표어의 전시장으로 되어 있다. 국민을 미성년자시 하는 정부의 자세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의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어깨띠를 두른 각종캠페인과 의식개혁운동으로 이어진다. 국민을 우민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권이 바뀐 현재에도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몇 십년동안의 그런 의식개혁운동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게 하였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한번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관위주의 행정지도와 의식개혁운동을 청산하고 참여를 통하여 자발적, 자생적인 시민정신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지방자치하에서 주민의 역할은 단순히 행정객체의 지위를 벗어나 지방행정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에 상응하는 활동을 하는데 있다. 주민이 지방행정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주민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개개의 주민으로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하기 힘들다.

개개의 주민이 가진 잠재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결집시키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단체가 주민의 지지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개개의 주민이 가진 아이디어와 능력을 지방행정에 반영시키는 길을 모색하게 되는 경우에 주민들은 행정객체로서의 피동적인 지위를 벗어나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하대교수·법학80졸〉

저녁 무도회

랑 정
(사범대 지교과)

새들은
저 저녁의 부두가로 날아와서
다시 그 희망의 불빛들 속으로 황홀하여가며, 갈색
머리의 아가씨와 나무의자, 저 저녁의 부두가로 흘러드는 하얀
빛들, 안개들, 무명가수의 표지판들, 재즈 연주자의
기타소리,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들
태어나는 수십마리의 새들……
밝은 갈색머리의 아가씨와 블루스를 춤추고
싶은 것이다……어디선가
말도 없는 검고 화려한 항기를 품은 소녀가
기도하리라 저 저녁의 노래를……
푸르른 사랑의 이야기를 기도하리라 또다시 새로운 나무잎이
태어나리라…… 맑은 눈물을
이제는 웃는 소리로 꿈꾸려 하는 것이다.
내밀하게 따스한 체온의 향기를 주는 여인과 웃으며 잠기는 것이다……
모래사장 가까이 바다물속으로 울리는 검은 소녀의
트럼펫의 나라에서 나는 저 저녁의 새들과 더불어
태어나 태어나태어나는 중세의 밤,
밤의 천사를 만나며.

열린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십시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 260-3491·2 (0561)770-2057

한총련 출범식, 백만학우 힘 확인자리

통근단결·사랑에서 변화·혁신가능

전국 백만 대학생들의 유일한 합법적 대중조직인 한총련!!

한총련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한총련은 거듭날 수 있고 국민들의 사랑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정말로 이땅 한반도를 사랑하고 민중들을 사랑하는 애국적 열정으로 전국의 백만 청춘은 '87년 전대협을 만들었고 오늘날 한총련 3기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 변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에 사는 청년학생들의 생각과 행동과 표정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여러가지 형태를 나타낸다. 그 다양함을 담고자 한총련은 생활과 학문과 투쟁의 영역을 책임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한총련의 전신인 전대협은 암울한 독재시대에 국민의 희망이고자 노력해왔고 많은 성과를 남겼다. 새로운 시대 한총련은 전대협의 장단점을 계승·혁신하여 다양한 학우들의 자주적인 요구를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원자주의 문제에서 교육문제, 노동문제, 외세문제, 통일문제까지 학우들의 합의와 참여에 기초해 풀어나가고자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4천만 민중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의 조직이 튼튼해지면 구성원들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어디에나 차이는 있다. 그 차이가 통큰 단결로 한 조직이 구성돼 나가야지 차별대립으로 나가서는 강한 조직이 될 수 없다. 문제제기도 구체적인 실천대안이 있어야 한다. 비관도 애정어린 비관이어야 한다. 힘을 주는 것이 비관이다. 비난은 단결을 저해하고 서로의 신뢰를 깨며 힘을 뺀다.

한총련은 백만학우의 힘을 확인해보고자 이번 출범식에 모였고, 각 학교의 문제와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임을 느낄 수 있었다. 한총련에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있는가 하면, 한총련을 과격한 운동권 모임정도로 인식하는 학우들도 있는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를 극복해나가 명실상부한 백만의 자랑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통큰 단결인 하나일때 국민들은 우리를 신뢰할 것이고 믿음을 보낼 것이며 함께 우리사회의 문제까지 해결해 나가는 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총련에 대한 통큰 단결과 사랑에서 부터 한총련이 변화와 혁신, 그리고 백만의 자랑, 4천만 국민의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함께 할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에서부터 한총련은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김 용 철

〈사범대 지교과〉

코끼리상 전소사건 계기로

"내 애교심은 어떤가"반성을

지난 4월28일 새벽 우리 학교의 상징인 코끼리 상이 방화로 인하여 전소되었다. 이 코끼리 상은 불교학생회가 제작하여 매해 제등행렬에 사용하는 장엄물로 우리 학교를 상징하던 것이다. 그런 코끼리 상이 제등행렬 하루 전 새벽에 불타 버린 것이다. 이에 우리 불교학생회는 분노를 느끼는 것과 동시에 참회를 하는 바이다. 우리는 한번 우리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우리 학교의 건학이념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코끼리 장엄물은 단순히 생각하자면 불교학생회만의 사적 소유물이고 그것이 불타 버린 것은 단지 한 동아리의 손해로만 치부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동국대학교의 상징 동물이고 대외적인 행사에 우리 학교의 상징이 되는 물건이라 볼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누군가 장난으로 방화를 했다면 그것은 올바른 정신 상태가 아닌 사람의 소행이라고 보이고, 타종교 집단의 방해 공작(?)이라면 그것은 우리 학교의 건학이념, 나아가서는 한국 불교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건 간에 우리가 더욱 개탄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 바로 학우들의 무관심, 학교 당국의 무관심인 것이다.

코끼리가 앙상한 철골만 남기고 다 타 버릴 동안 학우들은 그런 것이 교내에 있었는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관심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단지 물건 하나 타 버린 것뿐인데 왜 그리 소란이냐고 반문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그들이 진정 동국대학교의 학생이고 불교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학생인지 묻고 싶다.

관심이 없었던 건 학교 당국도 마찬가지이다. 불교학생회에만 코끼리의 관리를 일임하고 어떤 보안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은 것이 학교 당국이니 말이다.

이번 일로 인해 학우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코끼리에 대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일지라도 좀 더 나은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우리도 좀더 관리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면 앞으로 불교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더이상 코끼리가 천대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이 익 수

〈불교대 불교학과·불교학생회 회장〉

한총련 진보연대 문화제 저지 쏩쓸

지난 5월4일부터 6일까지 대구 경북대에서는 백만학우의 구심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범식이 4만여 학우의 참여속에서 열렸다.

4일, 본행사 출범에 앞서 가졌던 전야제에서 대경지역 진보연대 소속 학우들이 한달여간을 준비했던 '민중연대문화제' 공연이 한총련의 개혁과 민주노총 후원을 바라는 1만 학우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한총련 중앙위의 행사폐기 주장에 애초 민주광장에서 이동, 자갈밭에서 힘들게 행사를 열었다.

전야제 열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을 무렵 본 전야제 행사를 끝낸 민족 대단결 선봉대원들이 한총련 강화를 의치며 공연장을 둘러싸고 공연 저지를 했다. 또한 몇몇 학우들은 무대위에 뛰어 올라와 플래카드와 선전물들을 찢고 조명과 엠프가 나가 행사는 완전히 중단 됐고 이를 지켜보던 많은 학우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의 반이성적인 행위에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치사상의 자유가 완전히 묵살되는 이러한 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태에 대해 한총련 백만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사과의 성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우리 진보 연대 소속 학우들은 한총련의 민중적 강화로의 통큰단결을 주장했을 뿐이다.

또한 우리의 정치적, 사상적 표현을 했을 뿐이다.

진실로 한총련이 백만 학우의 구심점이라면 이러한 요구를 받아안고 이 땅 민중의 참 세상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함이 옳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이 생각난다. "운동을 함에 있어 계급적 관점이 없으면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우리는 한총련의 해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개혁을 통한 한총련 강화를 바랄 뿐이다.

김 선 영

〈삼경대 회계학과〉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동국역사의 발자취'기획부재

깊이있는 정보제공 아쉬워

개교 89주년 기념 특집호는 '그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단적으로 지적해 본다.

이유인즉 89회 개교 기념을 맞는 오늘 동국의 뿌리, 즉 역사의 발자취를 소급해서 되돌아본 기획은 하나도 볼 수 없다. 한세기 가깝게 민족의 역사와 동거동락한 동국대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너무 소홀했다.

그리고 문화면 아이템의 부재로 인해 생동감을 잃어 버린 채 진부한 소재만을 다루고 있다.

예컨대, 공동주제 다이어트를 다룬 '히포크라테스와 허준'에서 잘못된 다이어트의 사례와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정도의 지식은 누구나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것이다. 다이어트가 많은 사람의 관심사 라는 점에서 이 주제를 선정했는지 몰라도 폭이 넓은 것도 좋지만 좀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5면 학내보도면에 개교 89주년 기념식과는 관계없는 캠페인성 사진이 배치 되어있다. 물론 '캠퍼스 차없는 날' 실시를 통해서 학교내의 면학분위기 연구환경이 좋아졌고, 앞으로 지향하자는 의도가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기사와 상관 없는 사진을 기사와 함께 실은 것은 조금은 무리한 편집이라 생각된다.

김 필 중

〈이부대 법학과·본사 모니터〉

동/악/광/장

목떡골

⊠축하합니다

■바람소리 7기, 처녀 비행을 축하드려요. 많이 많이 비행하세요. 하늘이 우리를 부른다!

－바람소리

■하이텔 동국대 통신동호회 정식동호회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FLOUNDER

⊠수고하셨습니다

■동대 극예술 연구회 M·T 모두 모두 즐거웠어요. 특히 고학번 선배님들(전설속의 80년대 학번)정말 멋있었어요(?)

－95 보석들

■한총련 출범식에 다녀오신 학우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한총련 사랑이 모여 우리의 한총련이 강화될거구요. M·T 다녀온 교육학과, 수교과, 지교과 친구들도 재밌게 지냈죠? 우리 11일 한총련 출범식 뒤풀이에서 그간의 회포를 풀어보자구요. 장소는 J305랍니다.

－사범대의 희망 모여라 꿈동산

⊠알립니다

■동악을 빛낸 얼굴 이익환 휴가왔다감. 그날을 위해 오늘에 최선을 다하자.

－태풍부대 상병 이익환

■5월6·7일 M·T 무사히 재미있게 다녀왔습니다.

－젊은 새이웃

■나 외로운 남자입니다. 배는 좀 나왔지만 그만큼 덕이 있습니다.

－키애누 리브스

■훈상이가 시험에 떨어졌데

－슬픈 우식

■우리의 학년 첫 일문M·T를 재미있고 즐거운 추억 만들어보자!

－double dragon

⊠그리고…

■새는 하늘에서 산다.

－극회－九

■오늘은 동대의 날인가보다. 학교 이곳저곳 걸려있는 연등. 관인지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대인의 등록금이 아름다운 연등과 그 빛으로 바뀐 모습은 기막히게 아름답다.

－타대생

■일문과의 야구우승을 위해!

－일문과 구단주

■시험이 끝나서 무진장 째진다. 동대학우 여러분! 길고도 험난한 시험 무사히 치르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동국대의 공부벌레

■나의 영원한 친구 곰아! 곰아! 저번에 터미네이터와 내가 그 모임에 나가지 못해서 정말 민안하구나. 하지만 내 마음은 그곳에 갔었으니 용서해라.

－고향 친구가

■연정이 누나, 저번주에 용돈 받았걸랑요. 옛날에 약속한 점심 언제 사드릴까요?

－귀염둥이

온방골

⊠축하합니다

■한총련 민중연대 문화제에서 공연하신 민문연 동지 여러분 멋있었습니다.

－모90 산적이

■올해 성년을 맞은 우리 중문과 친구 은숙이, 수화 앞으로도 더 어른스럽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래 사랑해.

－혜련, 예경

■사랑하는 친구 지완이의 생일을 멀리서나마 축하합니다.

－황

■고미사 1학년 이쁜이 선정이의 19번째 맞는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미사 95 모든 학우들 일동

■가정교육과 효정이 언니 교생나가신것 축하해요.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세요.

－93 새내기

⊠수고하셨습니다

■영남지구 경서대회 준비하는 16기 동묵회 임원단들 수고 무지무지 많이 하는것 같은데 계속 수고하세요.

－15기 예쁜 언니가

■한총련 출범식에 다녀오신 진보연대 학우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모 인간이

■청년 불자의 하나된 함성, 불교학생회 여러분 부처님 오신날 수고 많으셨구요. 앞으로도 큰 발전이 있기를.

－불교 학생회 7기 유진이가

■5월5일 어린이날 행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낙비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자원 봉사단

⊠알립니다

■밀양연합 동문회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동안 수고 많았죠. 밀양아랑제도 끝이 났다는데 언제 모여 야유회라도 한번 갑시다.

－전 회장이

■수학교육과 성희, 신영, 영민, 혜진의 2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학교육과 95수윤

■동음여러분 콘서트 준비로 많이 바쁘시죠? 멋진 콘서트를 위해 모두들 화이팅! 사랑합니다.

－J·H

■불교아동학과 3학년 졸업여행 갑니다. 대학시절 멋진 추억을 남깁시다.

■동국대 산악부 춘계훈련을 무사히 마치길 기원합니다.(5월16일~19일)

■제일여고·제일고 연합동문회 못간 거 죄송해요. 다음엔 꼭 참석할께요

－새내기

■대동제를 준비하시는 총학생회 집부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모 부장이

■전사연 여러분 작은실천 제작에 박차를 기하고, 가열차게 투쟁합시다. 항상 웃으며 건강하게 열심히 삽시다.

－회장이

■변화적 민주노총 건설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는 민노총 후원단 여러분, 우리의 길이 멀고 험해도 끝까지 꺽이지 않는 투혼으로 승리의 그날까지 쉼없이 달려 갑시다.

－임시 단장이

⊠그리고…

■세운아 생일에 못가서 미안 늦었지만 생일축하해.

－M·Y

■혁재오빠의 군대입대가 곧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용감한 한국의 남아가 되시길.

－95 고미사 동기일동

■태연이 오빠!동문회 언제하냐! 축제기간내 한번하지~잉.

－?

■국문과 하나되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 합시다.

－국문人

■용문고 동문선배님들 화이팅.

－기획부장= 새내기인

■한총련 갔다와서 기분 잡쳤다. 행사도 미비하고 가짤은 파벌이나 들먹이고 싸우고, 소리지르고~ 끌끌 진정한 개혁이 그립다.

－쩝

■찬이 선배 저 졸업여행 가요!

－불동3 소영

⊠열심히 합시다

■고미사 1학년 M·T가 곧 있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고미사의 슈퍼모델 Kim

■경희야 힘내자 열심히 살자.

－옛 대장이

한미통상마찰로 본 WTO와 한국경제

WTO 통상압력 회피 수단으로 삼자

시사논단

이 시 영
상경대 경제학과교수

지난 2월 미국산 자몽이 부산세관에서 17일간의 잔류농약검사를 받고 통관되는 과정에서 30% 가까운 양이 썩어버린 일을 계기로 과일과 채소류에 대한 한국의 통관과 검사절차에 관한 한미간 무역실무회담이 최근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 협상은 지난 4월 2일에 미키 켄터라는 여성이 이끄는 미무역대표부(USTR)를 당황하게 할 정도로 한국측이 전례없이 강경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되었고, 급기야는 새로운 무역기구로 탄생한 WTO에 한국을 미국에 의한 제1호 피소국으로 선택되는 무역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분쟁은 지난 4월 29일의 육류 및 식품의 유통기한에 관한 협상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이어졌다. 이러한 협상실패를 계기로 미국은 양국통상마찰의 초점이 되고있는 표준, 통관, 검역, 식품위생등 시장접근에 장애를 초래하는 2차 수입장벽 전반을 WTO에 제소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한미 양국이 전례없이 무역회담을 결렬이라는 형태로 결말맺게 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WTO에서 패소하게 되면, 국제적 체면도 손상되고 결국에는 극단적 양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WTO보다 훨씬 강력한 미통상법 301조에 의한 무역보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여론이 많다.

그런데 필자는 WTO피소 자체나 미 통상법 301조의 적용에 무조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WTO라는 새로운 무역질서가 미국의 일방적 통상압력을 회피할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 5월5일 결렬로 끝난 미일자동차 협상에서 통상법 301조를 발표하여 10억달러의 일본수입제품에 1백%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일본도 미국을 WTO에 제소하여 다자간 심판을 받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이는 WTO가 소위 '미국의 경제주권'을 손상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한가지 예이다.

그러나 표준, 통관, 검역 및 식품위생을 비롯한 우리의 무역관행이 외부적으로 국제적 정당성을 보장받을 만큼 체계화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리로 훌륭히 무장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육류 및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제도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3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며, 과일과 채소류의 통관 및 검역의 절차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에서 검역기간을 5일로 단축하겠다고 제의했던 점으로 미루어 검역기간을 우리의 무역관행이 정당성과 논리성을 보장받기는 어렵다.

더우기 이번에 정부가 WTO에·피소되는 것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 이유가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무슨 논리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6월의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평판 만들기에 목적이 있다는 세인들의 지배적 관점이 사실이라면, 이번의 WTO제소 문제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져볼 가치조차 없다. 6월의 선거직후에 미국에 전폭적 양보를 하든지, WTO에 제소되어 패소하여 체면도 잃고 국제적 규제도 감수하는 결과에 도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근래에 정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개혁'과 '국제화'일 것이다. 그런데 경제학을 전공하는 필자의 시각으로는, 여타 분야는 잘 알 수 없으나, 최소한 국제통상분야에서 국제화도 개혁으로 별반 이루어 지지 않은 것 같다. 우선 한국정부가 교역 규모로 세계 12위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수준이하의 통상협상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상관련 업무에서 금융서비스 부문은 재경원, 자동차와 지적 재산권은 통상산업부, 농산물 검역과 유통과정은 보건복지부, 통신시장은 정보통신부, 육류시장의 개방문제는 농림수산부가 맡고 있으니, 협상테이블에서 부처간에 손발이 맞을 까닭이 없다. 심지어 정부가 취한 조치가 협상테이블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4월 초에 있었던 자몽의 통관과 검역에 대한 협상이 있기 하루전 부터 미국산 자몽이 선통관, 후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검역기간도 25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실시하고 있었으나, 당일의 협상은 전날 취한 정부의 조치가 반영되지도 못하고 결렬되어 버리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진 일이 있다.

최초의 한미통상분쟁에 대해 미국이 과거와는 달리 교역문제는 어디까지나 교역문제일 뿐이라는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과 관리들의 의식도 국제화될 필요가 절실하다. 혹자는 양국의 통상마찰이 확대되면 방관자로 있던 미 국무부가 한미안보관계를 고려해 USTR에 양보를 종용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북한 핵문제가 다시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공조관계가 절실한데 통상마찰이 북한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냉전시대에나 통용되던 해묵은 논리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미국의 제 1관심사는 '경제안보'이다.

한국정부는, 무위로 끝났지만, WTO의 초대 사무총장에 모 인사를 선출케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한국인이 사무총장에 취임하면 여러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국내에서 관례화되어 있는 관료적 사고방식을 WTO시대에도 적용시켜 보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나 염려가 된다. 정부는 사무총장에 자국인이 선임되게 하여 통상문제의 실질적 전문인을 기르려는 노력이 더욱 가치있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최초의 한미 통상마찰은 과거와는 달리 국가의 법률과 제도까지는 무역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러한 무역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법률과 제도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설

21세기 기획단, 유명무실 안되길

본교에 '21세기 기획단'이 발족되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본교의 장단기 종합발전 계획수립과 실천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 기획단은 1명의 단장에 8명의 연구위원, 그리고 간사를 포함한 직원 약간명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9일 정식임명절차를 마치고 실질적 업무에 들어간 이 기획단이 앞으로 얼마만큼 획기적 발전계획들을 수립해 낼 수 있을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러한 기구의 발족자체가 대학당국의 발전적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오늘날 한국 대학사회에 있어서 변화와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명제가 되고 말았다. 교육의 실수요자인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가가 그것을 추진중에 있으며, 세계적 흐름이 또한 그렇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도 기업처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점차 팽배해가고 있다.

'21세기 기획단'은 한국 대학일반이 갖고 있는 이러한 개혁마인드를 한 대학이 자기것으로 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의 표현이란 점에서 시의에 맞고, 또한 우리가 21세기초에 개교 '1세기'를 맞는다는 차원에서 응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전동국인의 희망사항과 직접적으로 접목되고 있는데서 더욱 주목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21세기 기획단'에 거는 기대 또한 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21세기 기획단'은 본교가 21세기 한국 대학교육의 미래 모델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멋지고 훌륭한 교육개혁 청사진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 '동국'의 특수한 교육이념을 감안, 세계속의 개성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화의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 앞에는 제3캠퍼스의 설립, 불교종합병원 건립, 해외분교의 신설등 교육의 양적 확대의 필요성과 학문상의 구조조정, 연구의 활성화, 사회교육프로그램개발등 교육의 질적향상의 필요성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학경영의 합리화, 행정의 쇄신방안등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21세기 기획단'이 우선 착수해야 할 사업들도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언이다. 일의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되는 일면이 있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다만 앞에 열거한 개혁, 발전의 문제들에 관한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교수 아홉명으로 구성된 이 기획단이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치밀하게 연구해 낼수 있을까 하는 염려는 지울 수 없다.

모처럼 발족한 대학발전추진 기구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되기를 촉구한다.

◇본교 해외 교류상황은 ?

영어방송·외국인 강사 임용
…유학생 교류 활발

송석구총장은 오녹원이사장을 비롯한 수행교수 1명과 함께 일본의 자매대학방문을 위해 오늘(10일)출국한다. 이번 일본방문은 해외 유학생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송총장은 취임후 해외교류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사업을 추진중이나 본교의 해외교류상황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며 기본적인 여건또한 갖춰지지 않고 있다.

타대학의 유학생 교류상황을 보자면 연세대의 경우 매년 봄·가을 정규코스에는 국제교육부를 통해 들어오는 학생만도 3백여명에 이르며 국제학 대학원으로·오는 학생도 2백여명이 된다. 이외에도 6주간 실시하는 여름학기에는 작년 4백80명의 외국학생이 참여했으며 서울대, 고대등도 매년 30~50여명의 학생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교는 현재 교류중인 미국, 일본, 중국의 유학생 전원이 10명이 채 안된다.

폭넓은 유학생 교류에 본교의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해외에서 교환학생이 왔을때 숙박을 할 기숙사시설의 부재이다. 해외교류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는 연세대의 경우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인 국제학사가 있어 2백40여명이 수용가능하다. 이런 기숙사의 확보가 선행돼야 교류활성화의 첫 문을 열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 중국등 교류확대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학생교류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까지 본교의 유학생 교류방법은 휴학후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유학생으로가서 한학기, 혹은 1년 단위로 공부를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인지 공부보다는 학위과정 이수를 위해 가는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이 방법은 개인적으로 드는 부담이 많아 학생참여 저조의 원인이 된다. 그 보다는 교류학교간에 학비와 기숙사비등을 상호면제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해외업무를 처리할 본교의 인력보강도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자매교가 18개교이고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교류는 점차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담당자는 단1명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교류가 확대된다 해도 일 처리가 안돼서 원활한 교류를 기대하긴 어렵다.

활발한 유학생교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부의 한관계자는 영어·일어 교내웅변대회나 교내방송시간중일부를 영어방송에 할애하는것, 다수의 외국인 강사임용등의 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외국어 교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 위치는 편리한 교통과 상권의 중심등의 주변조건을 감안해야 할것이며 다수의 외국인 강사를 유치해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과 교류유학생의 수업청취를 돕기위한 한국어 강좌의 개설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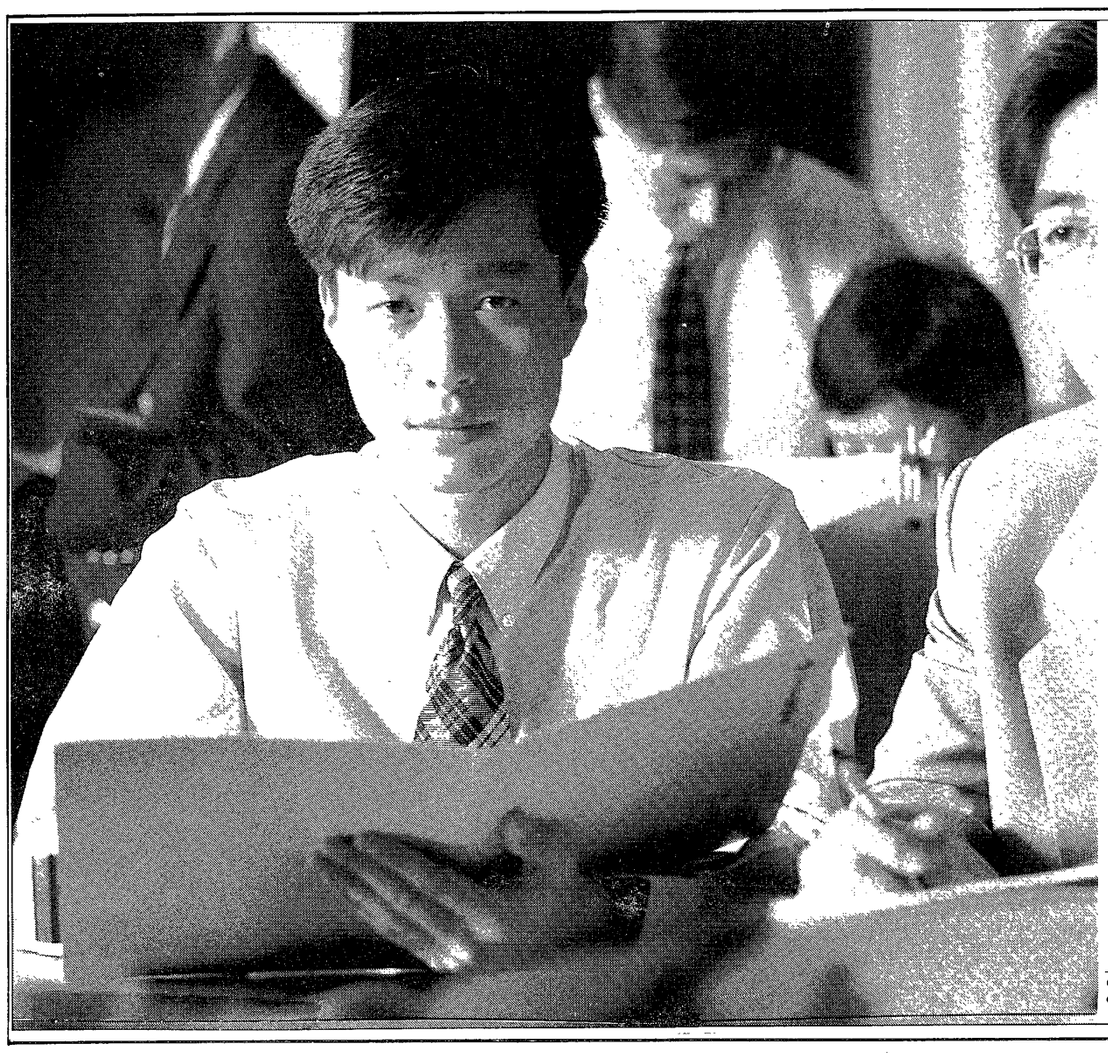
그동안에는 해외유학을 위해 휴학을 해야했던 반면 학점인정제도가 도입되면 재학중 해외유학을 할 수 있으며 전공과목과 유사과목의 학점을 취득해오면 그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다. 다른 변화는 현재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실시하는 영어LAB보강이다. 급격히 추진되어 시간과 학점인정등의 무리로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쳐 당초의 계획이 약간의 수정에 들어가게 됐으나 부족한 외국어 교육시설을 보완하기위해 시행됐다는 점을 본다면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상황의 고려없이 무리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보다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앞에서 언급한 기본 사안들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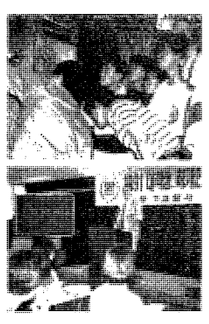
〈백도나 기자〉

동국만평

이 영 일



인재를 찾으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인재를 키워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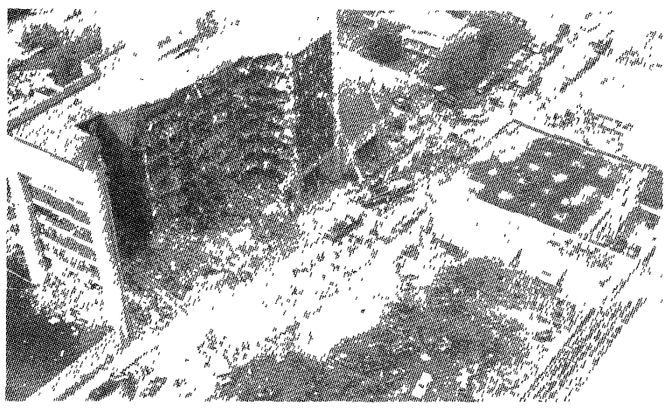
추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 수많은 과정끝에 옥석을 가려내지만
때론 기업 스스로의 무관심이 애써 찾은 인재를 오히려 도태시켜 버립니다.
인재는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열을 가지고 기업 스스로 키워내야 합니다.
삼양그룹의 신입사원은 사회인 입문을 위해 해외연수를 비롯,
6개월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기계발과 자신의 적성 재발견을 도모합니다.
또한 2년차 이상의 사원들은 3개월간 현업에서 완전히 떠나 본인이 계획한
교육과정 (Future Leader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국제화시대를 앞서갈
21세기 미래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삼양그룹은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매년 〈대학생 하계 어학연수 및 기업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89년부터 2년마다 〈전국대학생 논문현상공모〉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삼양사 (化纖, 식품, 사료, 化成, 환경사업) ● 삼양중기주식회사 ● 선일포도당주식회사 ●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 삼양화성주식회사
● 신한제분주식회사 ● 삼양종합금융주식회사 ● 주식회사 삼양메디케어 ● SY텍스타일 ● 삼양텍스 ● 디완 실만 파이버 ● 삼양그룹연구소 ● 양영회 ● 수당장학회

삼양그룹

◇무정부주의 실태—테러원인 분석



테러, 사회·경제적 박탈에서 기인
정부차원서 대응책 강구해야

김 보 환
(사회과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동경지하철 독가스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전에 미국 오클라호마시에서 발생한 연방빌딩의 대형테러폭발사건은 세계를 경악케 했으며 충격적인 테러살상사건이었다.

이와같이 근래에 이르러서 테러범들은 불특정 다수인까지도 그들의 제물로 삼으며 생화학무기같은 현대적무기를 사용하여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소련의 붕괴에 따른 동구라파 공산권의 몰락으로 인한 극좌테러단체의 활동이 퇴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는 여전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중대한 사회악임을 알 수 있다. 즉 테러리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이유를 이해할려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테러의 원인을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정신병리적요인에서 찾으려 했고 어떤 연구자들은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신념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소를 테러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치적 테러는 소수집단의 행동이라는 주장이 옳은것 같다. 실제 테러행위로 체포되었거나 재판을 받은 상당수의테러범들은 절대적인 개념으로든 상대적 개념으로든 정신병적이거나 사회경제적으로 박탈당한 사람들임이 밝혀졌다. 즉 대부분의 경우 테러는 사회·경제적인 박탈에 기인한 욕구불만이나 좌절의 공격적표출로 보고 있는 것이다.

테러의 원인이 어떤것이든 테러행위는 여러가지 조건 하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테러행위의 출현형태는 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다. 특히 소수집단의 경우 Baader- meinhof Gang이나 '적군파'와 같이 테러적이며 이념적인 성격을 띈 것이 있는가 하면, 종교적 신념이나 인종적갈등에 기인한 것도 있다. 더 나가서 테러형태는 국가테러나 국가지원테러형태로 출현되기도 한다. 그런데 국가테러는 히틀러 정권이나 미얀마의 폴포트정권하에서 처럼 정치적반대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행해지며 때로는 사회적 불안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국가테러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국가지원테러는 리비아의 Gaddafi부대 처럼 외국에 있는 자국민 중의 반정권세력에 대한 테러적 폭력행사로는 나타나기도 하며 한 국가가 국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터러조직을 지원하는 형태로 구분되기도 한다.

테러의 원인과 유형을 어떻게 설명하든 우리사회에 소외되고 박탈당한 집단, 그리고 사이비종교들 처럼 광신적인 종교적 신념으로 세상을 적대시하는 집단들이 있고 정치적이념으로 동족을 적으로 삼고 항상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북한정권이 있으며 극좌테러집단들이 있는한 우리사회는 테러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전략에 의한 국가테러나 국가지원테러는 전쟁의 성격은 띄지 않더라도 우리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다.

북한의 조선노동당규약의 전문과 사회주의헌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남전략정책의 기본목표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며 통일하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은 1948년에 북한정권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일관성있는 대남전략 정책의 기본목표를 충실하게 추구해 왔다고 하겠다. 따라서 침략행위는 물론 미얀마의 아웅산국립묘지 폭파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요인암살에 의한 정부정복 그리고 생화학무기나 폭발물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의 살상을 예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원인에 의한 여러가지 형태의 테러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국가나 정부적 차원에서는 물론 범사회적인 측면에서 테러대응책을 강구하여 무고한 인명살상을 막아야 하며 사회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생협으로 가는 길

두 번째 —타대학 사례

조선대, 학교측 시설비·교육비 지원…연간 40% 매출신장
본교·단대·성대 등 20여개대 대학생활운동 전개

대학에서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생활 개선, 건전한 생활문화 향상 및 자치활동을 통하여 대학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대의 경우 지난 89년 국내 대학에선 처음으로 설립됐으며 91년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성장하고 있다. 현재 교수 2백30여명, 교직원 2백60여명, 학생 7천9백여명등 총 8천4백여명이 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조대 생협은 매년 30~40%의 매출신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학교측에 중·단기적 시설비 및 교육비로 3년에 걸쳐 3억2천을 기부했다. 한편 각 단과대학 휴게실 탁자 및 의자 구입, 대학교 전역에 쓰레기 분리 수거통 설치등 후생복지시설에 일부 투자했다.

특히 조선대는 교육부의 지원아래 1백80여개 대학에 생협이 설립돼 있는 일본 고베대학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자매결연을 맺어 60년의 역사를 지닌 이 대학 생협의 다양한 사례를 배우기도 한다.

학내생활자 7백50여명, 명예조합원 1천2백여명등 총 1천9백여명으로 구성된 이

화 생협은 1구좌(1천원)이상을 출자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93년 수익금 1천8백만원을 전액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또한 분리수거사업, 우리 농산물 판매, 생협 강좌등도 마련한다.

한국외대 용인캠퍼스도 5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작년 2학기에 정식으로 출범했다. 1구좌 5천원 이상으로 교수 1백여명, 학생 6백여명, 교직원 1백20여명이 공동출자했으며 용인캠퍼스의 경우 대학촌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학생들의 생협의 활용이 높을 것으로 학교측은 기대한다.

94년 12월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을 개시한 연대 생협은 1구좌(5천원)이상을 출자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학생(대학원 포함)재학인원 중 약 30%인 5천8백여명이 출자금을 납입했다.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 중 신입생에 비해 재학생들의 납입률이 저조했는데 이는 홍보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며 앞으로 홍보 및 조합원 교육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 한다.

특히 학교측의 전폭적인 지원과 학내외의 높은 관심속에 운영체계를 전산시스템으로 생협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간과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들 대학의 생협은 식당·매점·문구점·복사실·자판기등과 잡화점·컴퓨터매장·사진관·안경점·화장품점등을 관리 운영하면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며, 수익금으로 장학금과 복지사업에 지급한다.

동국대, 단국대, 성균관대를 비롯한 20여개 대학들도 생활협동조합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학생복지, 장학사업, 공동체 사업등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수, 학생,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물질적 공급만이 아니라 협동과 단결의 정신을 기르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생활협동조합'으로의 자리매김이다.

〈김은혜 기자〉

사회단신

민자, 단독 국회통과 파행
민주, 탑골 공원서 침묵시위
—경찰저지로 무산

민자당이 지난 4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등의 내용이 담긴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회는 또다시 파행정국으로 들어섰다.

민자당은 총무협상이 결렬된 직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단독국회 강행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자당 현경대 총무는 "민주당이 협상을 가로막는 것은 선거법 처리를 지연시켜 그 책임을 모두 여당에게 떠넘기려는 전략"이라며 "국민의 지탄을 받더라도 6월 선거를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는 4일까지의 단독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의 국회 단독강행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8일 제175회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민자당의 개회식 불참으로 개회와 동시에 장기 공전으로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황낙주 국회의장을 방문해 "지난 4일 민자당 단독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민자당이 의견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통합선거법 등을 통과 시켰다"며 철저한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한편 여권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9일 오전 이기택 총재를 비롯한 소속의원 전원과 보좌진 등 2백여명이 종로 탑골공원에 집결해 광화문, 삼청길동을 거쳐 청와대까지 침묵시위를 벌이고자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날 거리행진이 무산되자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대형사고의 빈발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국회가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하고, 단독국회 강행에 대한 대통령과 민자당의 사과,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국정심의 참여, 대구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등을 요구했다.

민자단독 국회강행, 민주 임시국회 소집, 민자 등원거부 등으로 정국은 계속 냉각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가스 폭발사건이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음에 따라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회부〉

동악로

물과 기름

흡사 전경과 학생들이 대치한 듯 행사장을 빙둘러싸고 "문화제를 사수하자"를 외치는 학생들과 "한총련 강화, 출범식 사수"를 외치는 학생들.

이 상황은 지난 5일 새벽 '한총련 개혁 모임 진보를 향한 연대'가 주최한 '민중연대 문화제'에서의 모습이다.

이날 전야제는 참가했던 학생들과 진보를 향한 연대 학생들 사이의 마찰속에 행사장의 배경 플래카드가 몇개 떨어지고 조명이 나가는 등의 소란이 있었다.

지난 4월 12일부터 한총련 개혁모임 진보를 향한 연대는 한총련 출범식기획단과 중앙간부들과의 여러차례 만남을 통해 출범식장에서의 '민중연대 문화제'진행허가를 요구하였으나 기획단과 중앙간부들은 불허의 입장을 밝혀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급기야 이런 의견 차이가 출범식장에서 많은 학우들이 보는 가운데 서로의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말았다.

제3기 한총련은 경선에 의한 의장선출이란 의미로 인해 많은 학우들이 달라진 한총련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했으나 지난 5일 새벽의 이러한 사태는 학생들의 이런 기대감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특히 사태이후 한총련 중앙상임위의 입장과 진보를 향한 연대의 입장을 담은 서로를 이해하려기 보다는 비방하는 내용의 각각의 문건은 이러한 학생들의 실망감을 한층 더 가중시켰다.

5일 새벽의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한 학생은 "한총련 출범식에 처음 왔는데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이렇게 백만학생의 다양한 의견과 모습들을 받아안는 한총련이냐"라며 되묻는다.

한총련과 한총련 개혁 모임 진보를 향한 연대가 더이상 '물과 기름'이 아닌 '바늘과 실' 같은 관계가 되어 더 나아가 한총련, 진정한 백만학도의 구성체인 한총련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박대용 기자〉

여행같은 생활을 위하여 – 인빅타 tutta la liberta' (뚜따라 리베타) 는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invicta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찾고, 절대자유. 절대젊음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이태리 자유패션 - '인빅타' 의류에서부터 가방, 신발, 장갑, 벨트, 선그라스등에 이르기까지 이태리 특유의 예술적 감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장 메트로 미도파 백화점5층 02)319~8236/용산 국제빌딩 지하아케이트 02)799~7760 /애경백화점2층 02)852~8356 / 갤러리아 백화점3층 02)511~5760 /대전대리점 042)256~6659 / 전주대리점 0652)83~5335 대리점 개설문의 Tel:(02)799~7572~9

Since 1906 invicta Travelling and Sporting Goods

◇제3기 한총련 출범식을 다녀와서

"백만청춘 힘모아 분단 50년 통일원년으로 만들자"

무대중심에서 마당중심으로 전환… 대동축제·참여의 장 이뤄

전 야 제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의장= 정태흥·고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 출범식을 알리는 전야제가 지난 4일 오후 10시30분 대운동장 중심의 원형무대에서 약4만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욱(단국대 총학생회장)군의 사회로 막을 올렸다.

행사는 가스폭발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애국의례로 시작됐으며, 대구를 바로 알리는 대중연합의장 안종호군의 연설이 이어졌다.

이어 대구지역 노래패 '소리타래'의 축하공연이 진행됐으며 '마, 억쑤로 수고 했심더'란 사투리와 치뤄진 파도타기는 행사열기를 고조시켰다.

새롭게 시도된 나레이션극 '사계여행'은 모꼬지를 갔다온 학생의 소감, 민중을 바라보는 청년과 함께했던 청년들,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선배들의 내용을 사계절에 맞추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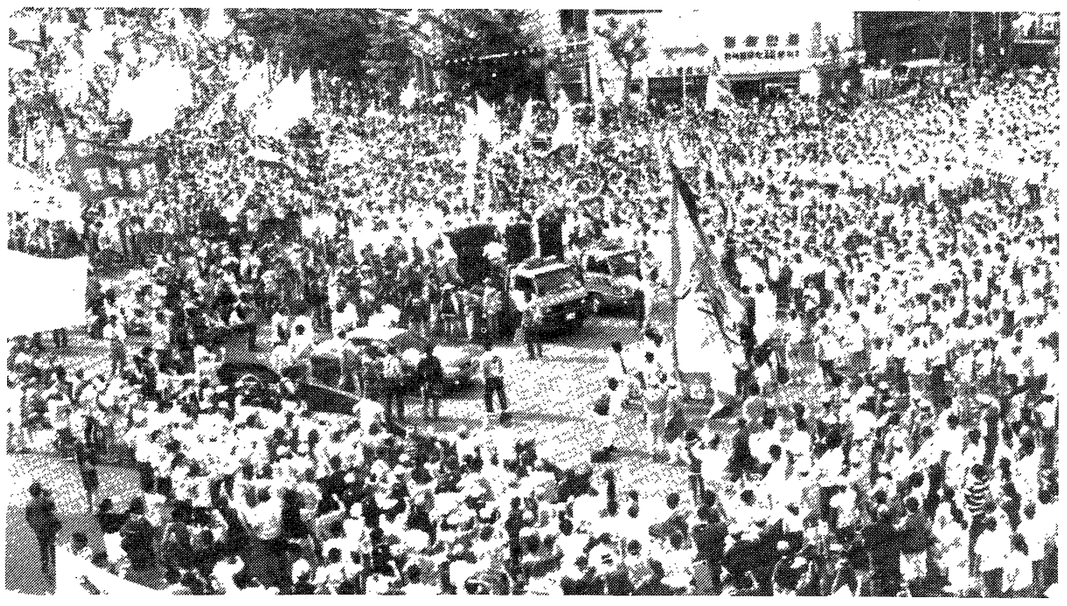
문예대와 '조국과 청춘'의 공연에 이어 영화 전태일의 주인공인 홍경인(연극영화1)군이 참석해 "전태일편전을 읽고 감동을 받았으며 그분 뜻을 받들기 위해 역을 맡았다"고 소감을 말해 참석한 학생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전태일 제작진도 함께 자리를 해 영화후원을 부탁하는 자릴 가졌다.

또한 희망새공연이 이어졌으며 전대협 4기 의장 김종식군이 교도소에서 쓴 편지 낭독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는 민총학련 박성희 대표와 "청년답게 통일을 생각하라"는 베릴린의 성용승 대표와의 전화통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역대의장소개와 정태흥(고려대 학생회장)의장의 결의로 전야제의 막을 내렸다.

본 대 회

본 출범식이 이튿날 5일 약 4만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경북대 운동장에서 열렸다.



오후 8시 예정이었으나 약 30분 늦게 시작된 이번 출범식은 배정기(경희대)서 총련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이 올랐다.

몸짓패, 새내기 문예단공연등의 문화행사가 열기를 고조시키며 학생들의 파도타기로 한껏 본행사 개막의 신호를 알렸다.

선배열사에 대한 묵상이후 학생들은 결전가를 부르며 라이타불로 단결을 보여주는 장관을 연출했고 이어 각지역 총련의장 인사말과 선배열사의 부모님 소개, 장기수 선생님, 전국연합 이창복의장 인사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순서로 잔잔한 음악과 함께 북·해외학생대표단의 축사가 숙연한 분위기속에 낭독되고 꽃다지의 공연으로 종망원형무대가 빛을 바랬다. 이어 유가협회장과 민가협어머니, 민주노총대표의 축하인사가 진행됐다.

본 출범식 선언마당에서 제3기 한총련 학자추 김태욱 위원장의 결의문낭독 제6기 조통위 이원구 위원장의 선언문 낭독으로 본격적 출범식 선언무대가 시작됐다.

행사의 절정은 한총련 깃발의 카드섹션, 새내기 문예단과 함께 통일기관차에 몸담은 석장웅립식이었다.

제3기 한총련 정태흥 총의장은 선언문에서 "오늘 우리는 애국의 길을 가기위한 한총련의 깃발아래 다시 모였다. 분명 우리의 길이 있고 그길을 함께 할 우리 민중이 있음을 만방에 선언하자"고 밝히며 본 출범식행사를 마감했다.

백만학생 결의 대회

'백만학생결의대회'가 출범식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본대회가 있었던 경북대학교 대운동장에서 4만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치뤄졌다.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 김봉준(동아대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이번 대회는 △애국의례 △출범식 평가 △정치발언 △투쟁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태흥·고려대총학생회장) 조국통일위원회 의장 이원구(한양대총학생회장)군은 "독일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2차세계대전때의 잘못을 재판을 하며 시비를 가리는데 우리는 15년밖에 안된 광주사건의 주동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사건 주동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거국적 통일대행진으로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실현하자 △연방제방식으로의 통일방안에 대한 전국민적 합의확산으로 조국통일 앞당기자 △조국통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휴전협정을 철폐하자 △지자체 선거공간을 김영삼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책임자 처벌의 전국민적 목소리로 민족정를 바로잡아 나가자 △민중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96·97년 민주승리의 토대를 구축하자 등을 결의했다.

이후 대구시내를 행진하며 대구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학생 마당'이 진행됐다.

대구 경북지역총학생회연합, 경기 인천지역총학생회연합 등이 경북대학교 정문으로, 남부지역총학생회연합,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등은 북문으로 대열을 이뤄 나간 후 통일로, 시민회관, 매일신문사, 동아쇼핑을 거쳐 유신학원앞에 집결, 중간집회를 가졌다.

이에 두대의 헬기가 저공비행으로 "행진을 중단하고 집회를 가지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라며 "집회를 계속할시엔 강제로 해산시키겠다"는 경고방송을 해 잠시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곧 행진을 시작해 강제해산의 사태는 없었다.

한편, 행진중 많은 학생들이 시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였다.

다시 대열은 대구 미문화원과 경북대병원, 대구문화방송국을 지나 신천대로까지 행진을 벌인 후 해산했다.

시민학생한마당을 끝으로 제3기 한총련 출범식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특별 취재단

이 민 영 편집부장
양 수 정 사회부장
박 대 용 기 자
백 도 나 기 자
이 현 주 기 자
신 형 섭 기 자
박 묘 선 기 자
이 여 일 기 자
조 인 선 기 자
허 민 희 기 자
김 승 애 기 자

취 재 낙 수

오비이락

○…'한총련 강화 출범식사수!'

첫날저녁 한총련 중상위에서 전야제가 끝난후 행사를 갖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를 향한 연대는 민중연대 문화제를 강행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고.

마침 발언을 요구한 남총련 사수대가 무대에 올라서자 갑자기 정전사태가 발생, 진보연대측은 일부로 발전기를 차단한 행사방해로 오인하기도.

바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 연출돼.

"먹지도 사지도 맙시다"

○…한총련 출범식때 학우들의 배고픔을 달래기위해 먹거리를 마련했는데 한쪽 옆에선 노점상이 들어와 학우들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이에 한총련에선 노점상이 즐비해 있는 길목앞에서 학우들에게 "먹지도 사지도 맙시다"라는 구호아래 홍보를 했다는데.

다음날 노점상들이 없어진 길목을 지나가는 한 학우 "역시 한총련의 단결된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은걸"이라며 흐뭇해 하기도.

시민 학생 하나

○…한총련 출범식 마지막날 대구시내 가두행진에 많은 학생들이 대구시민에게 여러가지 설명을 했다는데.

설명과 아울러 율동까지 하며 나선 학생들과 열심히 듣는 대구시민의 모습이 마치 하나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시민에게 한마당을 보여주고 인사하며 다시 제자리로 뛰어가는 한 학생 "시민들이 반응을 보여줄 땐 정말 힘이 솟아나요!" 라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 문화공연 총평

한총련 혁신의 모습과 그 고민으로 다각적 변모의 모습을 학우들에게 보여주고 학우 중심의 의미를 가운데로 집중하기 위해 제3기 한총련 출범식은 그 공간을 무대중심에서 마당중심으로 행사진행을 전환했다는 데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새로이 변환된 중앙의 등근 마당에서 펼쳐진, '조국의 별과 함께 그리는 아름다운 대학시절'이란 주제를 놓고 한총련출범식 문화공연이 과연 백만학도의 열기를 모을 수 있었나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한 전반의 평을 내려본다.

지난 전대협에서 한총련에 이르는 출범식의 성과를 이어나가고 오류를 극복하는 실험의 장이었다고 평가가 내려진 이번 출범식은 90년대 한국 대학생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시대정신에 대해 고민과 문제의식을 던져주며 합의의 마당으로 기획의 초점을 두어 학우들을 막연하게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로 세우고자 했다.

그럼, 그러한 기획단의 의도가 학우들을 참여자로 세우는 데 얼마만큼 표출됐는지 구체적으로 전야제, 출범식, 백만청춘의 열린마당, 부문계열운동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야제에서는 두명의 주인공, 선·후배의 대화로써 일상대학인의 모습을 그렸다. 모꼬지, 학생회, 청년의 삶과 모습, 자신을 내던져 조국은 구하고자 했던 선배 등등. 그러한 대학인의 삶을 사계적 분위기에 맞게 그리려 했으며, 출범식은 대학인과 우리 민족의 힘을 느끼고 이시대 대학인의 시대정신을 밝혀보는 장으로 만들고자 했다.

전야제·출범식 문화공연은 국악과 공연, 예술대 학생 공연 등 신선한 맛을 보여주었고 학우들도 처음에는 라이타를 깜빡이는 등 화합의 열기를 모으긴 했으나, 이후는 예전과 다른 바 없는 '무대따로'가 돼 버렸다.

또한, 백만 청춘의 열린마당은 역사, 철학, 노동운동, 교육, 여성, 영화, 통일, 대학문화, 지자체등 27개 강좌가 마련됐다. 이는 강연실에 비해 앉은 자리가 모자랄 정도의 높은 호응도를 얻었으며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 한총련의 활성화를 위한 부문계열 한마당은 풍물패, 노래패, 춤패, 동아리, 언론 등과 같은 부문과 법상, 산업, 농업제일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고민을 듣고, 부문계열의 창조성과 전문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살려가는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경북대 곳곳에서 열린 선전거리, 부문계열 거리에서 북한의 생활풍속도 전시회, 단군릉 복원과 해설, 춤마당, 개사곡 한마당 등은 부문계열의 특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한편 춤패, 율동패, 노래패, 동아리연합 등은 이번을 계기로 이후 전국적 모임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 저것 많은 시도를 보였던 제3기 한총련 출범식은 문화공연이 서툴렀고 문화공연의 전·후 맥을 그리 매끄럽게 연결시키지 못했다.

특성있는 부문과 계열운동의 내실있는 내용성으로 백만학우들의 고민된 내용이 함께 어우러져 매끄러운 한 방향으로 만들어 내기를 또 한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백만학도의 열기를 모으려는 문화공연은 다각적 시도에서 많은 부분 미흡했으나, 새로움의 시도로써 이후 한총련 문화공연의 향상발전의 여부는 백만학우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 한총련 기자 회견

구태의연한 관성 과감히 탈피
한총련혁신 흐름속 통큰단결이룰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태흥·고대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출범식 마지막날인 지난 6일 경북대에서 배정기(서총련 의장)한총련 대변인 사회로 한총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3기 한총련의 방향제시및 한총련 출범식 진행과 관련 '민중연대문화제'에 대한 한총련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출범식때 정책노선을 보면 한총련에서는 통일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국내외 정세로 볼때 통일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

=한총련은 백만학도와 함께 고민하고 투쟁하는 조직이다. 모든 상황과 사안에 대해 대변할 수는 없다. 시기마다 요구되는 것중에 가장 요구되는 것에 집중한다. 올해는 민족사의 대전환기인 통일에 힘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대구시민들은 1, 2기에 비교하여 3기 출범식이 평화롭게 치러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대한 배경과 3기 한총련 방향은 관계가 있는가.

=3기 한총련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정치적 구호속에서 학우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무대중심의 행사에서 백만학도의 대동축제의 장이자 참여의 장이 되도록 마당중심으로 전환했다. 대구 시민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대구시민을 애도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려 한다.

-'진보 학생 연대'의 '민중연대 문화제'에 대해 제지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함께 해야하지 않았는가.

=3기 한총련 출범식은 4천만 민중과 7천만 겨레의 희망으로 태어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구태의연하고 관능적인 것은 과감히 탈피한다는 것이 기조였다. 한총련은 '진보학생연대'가 1, 2기 출범식 때와 마찬가지로 행사를 한총련 전야제와 동시에 진행하려하는 것에 대해 '진보학생연대'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내용은 한총련 중앙상임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반행사 속에 담겨 있으므로 함께 할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두 행사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각급단위 학생회의 깃발아래 통일적으로 움직여야할 학우들이 정치적인 견해의 상이함으로 다른 행사장에 앉아 있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총련으로의 통큰 단결은 한총련 운동의 생명선이다. 서로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실천적 연대가 있어야 한다. 명확하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해 보라. '진보학생연대'는 이제 낡은 사고와 관성에 젖어 활동할 것이 아니라 한총련 혁신의 커다란 흐름에서 함께 해야할 것이다.

-3기 한총련의 기조나 방향이 앞으로의 학생운동에 미칠 영향및 경찰의 보호선을 넘어설 경우 마찰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적인 방향은 해방50년, 분단50년을 통일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남북해외와의 만남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김정권의 개혁의지는 총체적으로 봉괴됐다. 5, 6월에는 각계 투쟁이 동참하여 김정권에 대한 명백한 심판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마찰에 있어서는 경찰이 먼저 강경 진압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진보연대 기자 회견

한총련 개혁모임 '진보를 향한 연대'(이하 진보연대)는 지난 4일 있었던 민중연대문화제와 관련, 한총련 측의 왜곡보도를 주장하며 6일 12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보연대가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11시30분에 문화제가 시작됐다'와 '발언을 요구해 무대로 올라가려다가 그것을 무대 점거로 오인해 마찰이 일어났다'는 부분으로 이에 대해 11시30분에는 리허설을 하고 있었으며, 발언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순서를 무시하고 무대에 올라가 이를 저지하려하자 한총련 일꾼들이 플래카드를 뜯기 시작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다음은 입장표명후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진보연대가 더 이상 정치조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위상은 무엇인가.

=대중속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정치조직이라면 진보연대는 이미 검증받은 정치적 정견을 가진 학생의 대중 연대조직이다. 정치조직 유무에 대해 논란을 하는 것은 정파질서를 뛰어넘지 못하는 관성에 젖은 모습일 뿐이다.

-진보연대의 총기조와 노선은 무엇인가.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는 학생 공간의 연합조직으로 노동자, 민중의 연대틀 거리를 이루는데 있다. 상반기 기조는 WTO 출범과 함께한 김정권의 허구적 세계화 정책의 타도투쟁과 노동자의 실질적인 성과물을 이루는 것이다.

-민중연대 문화제에 대해 공식적 사과를 못받으면 어떻게 할것인가.

=5월5일 있은 면담에서 한총련 중상위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공식적 사과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제 관련 사태와 한총련의 모습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학우들이 판단하고 실천해야 한다. 단위로부터 학우들과 토론하고 고민할 것이다.

-진보연대에서 개최한 민중연대문화제가 한총련의 통큰 단결을 해치는 행위는 아닌가.

=사회의 방향에 따라 한총련의 의무와 역할이 주어지므로 상이한 의견을 인정해야 한다. WTO체제 출범이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역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민주 노총건설이 최후 과제이다.

문화제는 한총련 강화와 통일단결을 희망하는 우리의지의 표방이었다. 오류가 많아서 단결을 해친다는 의견이 나온듯 하다. 한총련의 분열이 아닌 강화를 위한 고민속에서 백만학도의 구심에 서기 위해 노력하겠다.

거 리 마 당

만남의 거리

대운동장을 들어가는 곳에 위치한 이거리는 백만청춘 얼굴찾기란 이름아래 한총련 출범식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남의 장소를 제공했다.

민족 복현 거리

이번 한총련 출범식을 가진 경북대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리로 2·28대구학살 의거, 한일 회담 반대등의 투쟁역사와 독서회, 정진회, 정사회등과 같은 예전 경북대내에서 활동했던 비공개지하서클등을 알려주었다.

통일광장

범청학련을 바로 알 수 있는 역사, 이념, 역사적 의미, 사업등의 소개와 통일 후의 모습을 가상으로 정치, 문화, 과학, 여행등에 비추어 그림으로 표현했다.

또한 장기수들의 얘기를 표현하는 장도 마련되었다.

통일광장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단군릉모형이였으며, 설명과 내부모형까지 자세히 묘사되었다.

전통거리

'보수여당의 본거지, 학살자의 고함, 반동의 도시'로 알려진 대구경북의 진모습 '애국전통'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리의 특성을 나타냈다.

대구 최초의 10월항쟁, 60년 2·28학생운동, 5·7교원노조, 인민혁명당 조작 사건 민청학련등 역사적 진실을 밝혀냈다.

한국 현대사 거리

한국현대사 거리에는 신탁통치 찬·반운동부터 5월 광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사진과 만화, 도표등의 종합적 게시판이 학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해방 전과 후의 미국등 외세의 숱한 개입의 역사들이 자세히 설명되었으며 대구 10월인민항쟁, 4·3제주민중항쟁등 민중들의 자의적인 항쟁의 역사가 사진과 만화에 잘 나타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본교 출신으로 58년 통일 혁명당 사건으로 체포되었던 김종태씨의 행적이 역사 인물란에서 눈길을 끌었다.

◇일본 근대문학과 사소설

'나'…현실생활 초월한 방외인으로서의 자신

저자 자신이 등장해 소설에 대해 평하는 모습 보여

지난 2일 한국문화연구소가 주최한 일본 무사시대학 도리이 쿠니오교수 초청강연 내용을 통해 20년대와 30년대에 걸친 일본 지식인의 모습과 예술가적 감흥을 느껴보자. 〈편집자〉

여기서 말하는 '私,나'란 프로베르가 "보봐리 부인은 나다"라고 한 그런 뜻에서의 '私, 나'이다. 근대소설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작자의 자기표현이라고 할수 있는데 특히 일본의 근대소설은 그러한 점이 뚜렷하다. 1910년대 말부터 나타난 '사소설'은 좋은 뜻에서도 나쁜 뜻에서도 일본적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한 일본 근대소설이 가지는 '나'의 특질에 대해서 개괄적인 해설을 하고자 한다.

일본 근대소설의 황금시대는 명치 40년(1907년)경부터 대정 말년(1926)까지에 걸친 약20년간이다. 자연주의 문학의 출발부터 시라카바(白構派)와 아쿠타가와 류우노스케(芥川龍之介)들의 시대가 끝날때 무렵을 말한다. 먼저 이 시대의 소설을 중심으로 '私,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소화라는 어려운 시대에 들어가서 '私, 나'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용되는지를 1935년(소화10)경의 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시미자기 토오손(島崎藤村)의 자전적인 소설 '봄'의 주인공인 기시모토 스테기치(岸本捨吉)가 소설의 중반에서 하는 "아아, 나 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살고 싶다"라는 말은 자연주의 시대의 '私, 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말하자면 '공(公)'적인 것 아래에서 억눌린 '私, 나'를 어떻게 해서든 해방시키고 싶다는 것이 자연주의 작가의 소원이었던 것이다. 스테기치는 자기가 자기답게 살려고 하면 자기를 길러주었던 옛 은인의 기대를 배신하게 된다는 점에 굉장히 고민을 한다. 결국엔 스테기치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 동경을 떠나 선태(仙台)에 가게 되는데, 그러한 스테기치는 현실을 초월하지 못하고 있다. 스테기치의 '私, 나'는 현실과 맞서는 데서 고민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토오손의 표현도 현실의 지평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백화파의 작가인 시가 나오야(志賀直哉)는 사람과 다른 자기를 찾아서 기독교에 접근해 보기도 하지만, 자기 아버지와 할머니가 요구하는 현실적인 생활은 결코 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버지, 할머니등의 현실적 생활자 입장에서 볼 때는 깡패같은 아들이라고 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나오야는 자기가 자기답기 위해서 문학의 길을 꼭 지켜간다. 나오야는 표현은 자기가 느끼는 '쾌·불쾌(快·不快)의 기본'에 계속 집착하고 있다. 그것은 속이지 않는 것이 나오야의 성실함이고 그 생각은 생활자의 현실보다도 무거운 것이다.

대정기(1912-1926)의 예술지향주의를 대표하는 류우노스케의 소설 '지옥변'에는 요시히데라는 화가가 나오는데, 그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희생제물로 삼는다. 자기의 그림 때문에 생활의 모두를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는 요시히데의 모습은 이해를 초월해서 사람을 황홀한 감동으로 이끈다고 지적한다. 그는 자신의 실생활은 신중히 유지하면서도, 소설 안에서는 인생의 가치가 일상생활의 사사로운 일과는 상관없는 '찰라의 감동(순간적인 감동)'에 있다고 단언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私, 나'는 그러한 소설 안에서만 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사소설의 대표적인 작자는 가사이 젠조오(葛西善藏)이다. 그는 아쿠타가와와는 달리 생활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았다. 소설 '아이를 데리고'의 주인공인 소전은 집세도 못내고 셋방을 쫓겨나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밤에 집을 떠난다.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데도 그 때 그가 끝까지 집착하고 있었던 것은 '예술가의 감흥'이다. 소설도 쓸 수 없고 가족을 데리고 살수도 없는 것이 그의 고민의 근원이지만, 결국은 그가 붙들어 잡고 있는 것은 '예술가의 감흥'이고 현실 그자체는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私, 나'를 그대로 그리는 것이 '사소설'이고 생활자로서 실패자라 하더라도 예술에 대한 성실함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 세사람의 대정 작가에 공통된, '私, 나'란 현실생활자의 차원을 초월한 데에 확고 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의 표현은 이 '私, 나'에 대한 확신에 바탕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과 동시대의 문학자인 사토오 하루오(佐藤春夫)의 말을 빌리면, '방외인'으로서의 자신이다. 사토오 하루오는 예술가가 세속의 가치관과는 상관없는 데서 독자적인 존재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여기서 1935년(소화 10) 전후는 눈을 돌리면,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소설의 소설'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스타일의 소설이 적지 않은 점이다. 소설 안에 저자 자신이 등장해서 지금 쓰고 있는 소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고 있다. 말하자면 소설을 쓰는 것을 소설로 써버리고 있는 것이다. 요즘에는 '메타소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20세기의 유럽소설, M프루스트와 A.지드의 계통을 이어받는 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1935년 5월에 다자이 오사무(大宰治)의 '익살의 꽃'과 이시카와 준(石川淳)의 '가인'이 동시에 발표되었는데 이 소설들은 둘다 '메타소설'이다. '익살의 꽃'은 태재 자신이 치른 정부와의 자살 미수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상대 여자를 죽이고 자기는 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는데에, 자주 화자인 '나'가 등장해서 이 소설은 실패작이라거니 엽장을 용서해 다라거니 하는 것이다. 이것을 '私, 나'라는 점에서 생각해보면, 소설을 쓰는 '私, 나'라는 존재가 정해져 있지 않고 발견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아닐까. '가인'의 앞부분에 나오는 "소설을 쓰려고 하면 꼰 끝에서 '나'라는 말만 넘쳐와서 소설을 '신생'에서 쓰고 고백함으로써 자기구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럴수 없었다. 대장염장을 단죄할 때에도 단죄하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일수 있는지를 밝히지 않는 한 엽장을 그릴수 없다. 쓸수 없다고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불확실한 '私, 나'를 떠맡아 버린 고민을 여기서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私, 나'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넓게는 20세기의 세계의 고뇌를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일본에 왜 나타났는지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근대자체를 검증해야 될것이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서는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걸친 일본, 그안에 있는 지식인의 모습과 양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번역정리 : 와타나베 나오키 (渡邊直紀)

〈대학원 국문과 석사과정〉

◇물교신행, 그 문제와 방향 초록정리

석가모니불 중심으로 올바른 신행 좌표 확립해야

"바르게 알고 믿고 행해야"

지난 4일 동국관(L401)세미나실에서 본교 불교문화연구원(원장=권기종·불교학) 주최로 '불교신행, 그 문제와 방향'이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발제 강연에 이어 네 명의 교수님이 주제발표를 했고 여기에 다시 열띤 토론이 뒤 이었다. 송석구 총장을 비롯하여 5백여명의 동참으로 성황을 이룬 이 세미나를 소개한다.

먼저 발제 강연에 나선 권기종 교수는 '불자의 바른 신행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날의 한국 불자들의 신행에 내재된 여러 문제들을 폭넓게 정돈하여 제시하고 있다. 문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때 그 해답도 정확해질 것을 생각하면 비록 말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과감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권교수의 두가지 문제점 지적은 주목된다. 곧 한국불자에게 있어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신불지교(信佛之敎)인가 아니면 부처님이 되는 성불지교(成佛之敎)인가"의 지적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보다는 특정한 보살의 명호를 부르니, 마치 이는 (석가)불교가 아니라 관음(보살)교 지장(보살)교를 방불케 하고 있다"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불자의 바른 신행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발제 강연에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 강건기(전북대 철학과)교수는 '한국불자의 신행형태'라는 주제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강교수는 먼저 불교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제언 아래 지속적인 경전 독송을 요청하였고 둘째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제언아래 석가모니붇을 중심으로 한 신행 좌표의 확립을 요구하였다. 셋째 '바르게 행(行)해야 한다'는 제언 아래 특히 요익중생을 향한 조직적인 신행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어 두번째 주제인 '경전에 나타난 불교신행'을 발표할 채인환스님(선학과 교수)은 '법구경'을 불자 신행의 핵심 경전으로 소개했다. 인환스님은 이외도 '부모은중경'과 '옥야경'등의 재가불자를 위한 경전을 신행의 지침이 되는 경전으로 꼽으며 이들을 바탕으로 불자들은 신앙과 생활에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 목정배(불교학)교수는 '계율의 새로운 해석과 현실화'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주제를 공론으로 제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을 먼저 지적했다. 그런 전제하에 첫째 교단내에 계율을 새롭게 제정하는 기구를 둬야 하고 둘째 한국 승가의 제정이 세계 승가회의 공인을 받게하고 세째 그것이 전 인류의 보편적 윤리 규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끝으로 '불교 신행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병조(국민윤리학과)교수는, 첫째 인과의 질서를 믿고, 둘째 현상세계의 공성을 체득하고, 셋째 인격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네째 조화로운 삶을 구현하고, 다섯째 생명의 실상을 통찰하는 쪽으로 불교 신행의 방향은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네명중 박광서(서강대 물리학과)교수는 불교수행의 모델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재정립되어야 하고 아울러 어린이법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토론에 임하였다.

이어 홍사성(불교TV 제작국장) 선생은 교리와 신행의 불일치 현상이 두드러짐을 지적하며 아울러 가장 불교다운 불교를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일임을 강조했다.

다음 서윤길(불교학)교수는 지나치게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신행만을 강조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정적이고 내면적인 신행에도 무게와 방법론을 부여하여 균형잡히고 중도적인 불자의 신행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언표했으며 아울러 불자의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진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비교적 가까운 현실성이 있는 목표설정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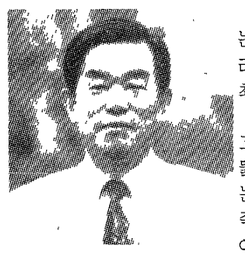
끝으로 최현각(선학)교수는 사상은 그 시대의 유행을 반영할 수 밖에 없음을 전제한 뒤 불교의 방편을 바르게 선양하며 지역신앙적인 신행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했다.

비록 뚜렷한 결론은 없었으나 보다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오늘의 한국불교의 신행 현장을 해부한 이 세미나에서 새로운 불교발전의 단서를 보았다 할 것이다.

최 봉 수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

달하나 천강에

과학과 종교



과학과 종교의 유사한 점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삶을 살아 가는데 있어서 진리를 추구하며 그 진리 속에서 진리에 최대한 접근하여 살아간다는 것이다.

진리란? 상대적 입장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원리로서 시대적인 변화를 꿰뚫고 있으며 사회적인 다양성을 일관하는 법칙을 의미하고 아울러 국가와 민족은 물론 계급도 초월하는 법칙이므로 이러한 진리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존과 밀착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과학자나 종교인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그 방향과 초점이 약간 다를 뿐이다.

사람이 세상살이를 영위해 가는 데에는 3가지의 세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물리적인 세계이며 둘째가 감성적인 세계이고 셋째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과학은 가시적인 물리적 세계에서 진리를 참구하는 학문으로서 여기에 감성적인 세계까지 포함할려면 반드시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 영적인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사람들의 행위가 진리밖에서 실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두된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흔히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였다고 하는 신앙인들은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의 진리까지를 탐구한다고 한다. 따라서 과학가와 종교인은 대치적 존재가 아니고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과학가는 종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준한다. 3차원세계에서의 진리를 추구하다가 시공을 초월해 4차원에서의 진리를 탐구하여 터득한 것이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상대성이론(Theory of Relativity)인 것처럼 과학도 시대변천에 따라 진리의 기준이 다르게 변해 왔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창조과학의 이론도 현재까지 계속 변혁되어 왔다고 본다. 과학과 종교는 물론 우리의 삶 .모두가 일체유심조 즉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므로 마음 다스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본다. 마음은 흙과 같아서 세네카(Seneca)의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경작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말과 같이 마음이란 황폐한 흙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사상으로 끊임없이 시비하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고 황폐화만 계속된다. 즉 좋은 종자를 파종하여 잘 관리하면 훌륭한 수확이 가능하지만 불량 종자를 뿌리면 잡초만 무성한다. 마음도 위와 같아서 마음 먹기에 따라 좋은 과실을 수확할 수 있다. Computer 입력에 GIGO(Garbage In, Garbage Out) 즉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로 훌륭한 생각으로 마음을 결정하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인간이란 자기 자신에 의해 행성되고 해체되므로 사고의 올바른 선택과 진실한 적용으로써 과학가나 종교인이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 속에서 삶을 영위한다면 새로운 진리와 질서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김 경 제 생명자원과학대 식물자원학과 교수

문화단신

◇현대철학의 두가지 전통과 마르크스주의…정치경제학 비판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정치학으로 발전해 나간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역사, 제2인터내셔널에 의한 철학적 수정, 루카치·아도르노·알튀세등에 의한 철학적 발전,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담론이론, 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론등이 치밀하게 분석되어 있다. 특히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근대·탈근대'논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단초를 마련해 주고 있다. 도서출판 갈무리.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7천5백원

◇문예아카데미 특별영화강좌: 알고보면 더 재미있다-영화 자세히 읽기…민예총이 주관하며, 영화평론가 이효인이 '세상밖으로' '서편제' '향수'등의 영화를 텍스트로 삼아 이론적 접근보다 평범한 관객을 위한 그자체의 분석을 시도한다. 5월17일부터 6월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 수강료 4만원. 문의 745-6271

〈문화부〉

명진관 매점 심의위원회 구성

'백상의 집' 임대업자 선정 추진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공간위)는 그동안의 위원장 처우문제를 학교와의 합의하에 일단락 짓고 지난 2일 공관위 운영위원회의를 열었다.

안건으로 운영규정개정방안이 논의되었는데 이에 공관위는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심의 소위원회는 사업본부장,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대학원 학생회장, 노조위원장, 운영위원장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이 소위원회의 대표들이 각각 안을 만들어 다음 회의부터 논의할 예정이며 기본방향은 학교당국과 유기적 협조속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백상의 집' 개보수에 대해서는 학교 여건상 증축은 안되므로 증축을 하지않는 한도내에서 개보수를 실시키로 하고 시공자 선임을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9일 학교측에 발송했다.

또한 '백상의 집' 임대업자 선정등의 문제로 명진관 매점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을 선임중이다. 심의위원회는 현재 입찰에 응시한 9개 업체중 서류심사를 거쳐 5개 업체를 선정하고 면접을 통해 1개업소를 확정할 것이다.

회칙 개정 소위원회 발족

총학생회칙 부분 개정 위해

지난 4일 있었던 제5차 총대의원 중앙위원회의에서 총학생회칙 부분개정을 위한 '회칙개정소위원회'가 총대의장과 불교대 대의원장 이상엽(불교4), 법과대 대의원장 최윤모(법4), 총운위 1인을 구성원으로 발족됐다.

회칙개정소위원회는 위원장 선출의 공개성을 위해 △학생복지위원회 회칙 개정 △졸업준비위원회 회칙 개정 △총투표의 절차와 위상 명문화 등을 계획중이다.

신설학과 학회실 마련될 듯

광고학과 교수채용 문제도 해결전망

야간강좌 신설학과들의 학회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과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황인구·영문3 이하 야총)측은 동국관 5층로비를 학생회실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야총측은 지난달 17일부터 4층로비를 점거, 신설학과들의 학회실로 사용하고 있다.

야총측은 만일 5층로비의 학생회실 사용이 확정될 경우 △그 공간은 가공간임을 확실히 하고 △학술문화회관이 완공되어 공간문제가 해결되면 신설학과 학생회실을 타 학과 학생회실과 동일한 층에 배치해 줄 것과 △5층로비의 사용에 대한 학우들의 양해를 바라는 발표문을 야총과 학생처의 공동명의로 낼 것 등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논란이 되어온 교수채용문제는 96학년도 교수채용공고에 광고학과 명의의 독자적인 전임교수를 채용하는 선에서 해결될 전망이다.

95학년도 2학기 교수채용공고에는 광고학과를 제외한 증어중문학과와 신문방송학과만이 전임교수 채용공고를 내서 그에따른 많은 논란을 빚어오고 있었다.

◇ 환풍구(?)… 학생회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옆 유리창이 깨져 남은 조각이 날카로움을 자랑하고 있다. (백도나 기자)

1학년 LAB 보강 학점 반영 않기로

2학기부터 정규시간대로 편성 방침

◇ 동국관에서 1학년생들이 LAB 보강수업을 받고있다.

'시간대의 불합리성, 대학원생이 강의, 성적반영'등의 문제를 들어 사범대 학생 등 다수의 학생들이 거부해 오던 1학년 LAB보강이 2학기부터 정규시간대로 조정될 계획이다.

1학년 LAB보강은 외국어실력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4월17일부터 아침 7시30분에 실시되어 왔으나 학생들의 "권장사항임에도 불구하고 LAB성적에 반영하고, 서울의 거주지역학생은 고려하지 않은 시간대 편성과 대학원생에 의한 강의는 말도 안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원활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무처는 "대학원생이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문과 조교 8명이 매일 나와서 질문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2학기부터는 강사가 강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청각교육은 LAB성적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나 2학기부터는 영어실습 수강자는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며, 출석일의 1/3이상 결석시엔 LAB학점을 인정하지 않고, 시청각교육시간을 종합강의시간표의 정규시간대에 편성할 방침이다.

춘계 명찰순례

강원도 민통선내 건봉사

'제4회 춘계 명찰순례'가 학생과(과장=선상규)주최로 오는 12, 13일 이틀동안 강원도 민통선내 건봉사를 순례지로 치뤄진다.

학생, 직원, 교수할 것 없이 동국인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한 이번 순례는 학생과에서 오는 12일까지 선착순 80명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번 순례는 첫날인 12일 설악산 신흥사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건봉사로 들어갈 예정이다.

학생과의 한 관계자는 "크게는 건학이념 구현, 작게는 본교학생, 직원, 교수들에게 우리나라의 명산명찰을 두루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본 행사의 의의를 밝히고 "만해선사가 잠시 머무른 곳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 1학기 2천1백99명 장학금 수혜

교내 교외서 17억 5천만원 지급

95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결과 교내 장학금은 1천9백50명이 14억6천5백47만9백원을, 교외 장학금은 2백49명이 2억8천6백15만5백50원으로, 총 2천1백99명이 17억5천1백62만1천4백50만원을 수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장학금의 학년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1학년=82명, 8천7백70만5천6백원 △2학년=6백3명, 4억1천94만6천4백50원 △3학년=6백23명, 4억6천25만6천6백원 △4학년=6백42명, 5억6백56만2천2백50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교외장학금은 30명이 동문회 장학금 2천6백45만6백원을, 1백6명이 장학재단으로부터 1억4천53만2천2백원, 87명이 공공법인장학금 8천2백31만1천3백50원, 26명이 기타 장학금 3천6백85만6천4백원을 수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대학원 학술토론회

제11대 대학원 학생회(회장=김광응·정치학과 박사과정)는 오는 22일 동국관(L401)에서 학술 토론회를 실시한다.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제의 효율적 조기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제 하의 시민 참여에 관한 정계, 학계, 시민단체의 시각을 검토함으로써 시민 참여공간 창출 및 시민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와 시민참여'란 주제로 열린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본교 심익섭(행정학)교수가 지방자치제의 정착방향을, 국민대 김병춘교수가 지방자치제 하의 시민참여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민자당 손학규의원, 민주당 이철의원, 정치학 박사 손혁재(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씨가 참석한다.

학술토론회를 준비하는 한 관계자는 "매년 봄에 열린 초청강연대회와는 달리 발표자와 토론자 및 방청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토론회를 가졌으며 각 정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것"이라며 특히 "학부생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주동선생기념사업회

전집 5권 간행

고(故)양주동선생의 기념사업을 위해 작년 10월21일에 발족한 양주동선생기념사업회(회장=김영배·국문학)는 첫번째 사업으로 전집 5권을 간행했다.

고가연구(古歌硏究), 여요전주(麗謠箋注), 국학연구논고(國學硏究論攷), 문주반생기·인생잡기(文酒半生記·人生雜記), 지성의 광장(知性의 廣場)등 5권이 지난 4월 1차분으로 본교출판부에서 제작됐는데, 총 12권이 간행될 예정이다.

졸업앨범 촬영

오는 26일까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김동희·경제4)는 95년 앨범촬영 일정을 각 과별로 발표했다.

앞으로 있을 앨범촬영일정을 살펴보면 △10일=오전 10시 사회학과, 오전 11시 법학과 △11일=오전 10시 경제학과, 11시30분 화학과, 오후2시 통계학과, 3시30분 경제학과(야) △12일=오전 9시30분 정보관리학과, 오후 12시30분 무역학과, 오후 1시30분 무역학과(야) △15일=오전 9시30분 경영학과, 오후 1시30분 회계학과(야) △16일=오전 10시 회계학과, 오후 1시30분 경영학과(야) △17일=오전 10시 산자과, 11시 농생과, 오후1시 농경과, 2시 농학과, 3시 연영과 △18일=오전 10시 국교과, 11시30분 역교과, 오후 1시30분 교육학과, 3시 영문과(야) △19일=오전 10시 지교과, 11시 수교과, 오후 1시30분 가교과, 2시30분 체교과 △22일=오전 10시 기계공학과, 11시30분 국민윤리학과, 오후 1시30분 영문학과(야) △23일=오전 10시 전자공학과, 오후 1시 화학공학과, 2시 전자공학과 △24일=오전 10시 건축공학과, 11시 산업공학과 △25일=오전 10시 토목공학과, 12시 식품공학과 △26일=오전 11시 컴퓨터공학과, 오후 1시 미술학과 등이다.

인철과, 불교학과, 선학과, 일문과, 영문과, 국문과, 물리학과, 수학과, 독문과, 철학과, 사학과, 정외과, 경행과, 행정학과는 이미 앨범촬영을 끝냈다.

사무국장 강석원(경제4)군은 "몇몇 늦는 학생때문에 촬영이 지연되는 일이 자주 있다"며 일정에 늦지 말것을 당부했다.

동국소식 9호 발행

봉축행사, 입시일정 등 실려

공보부(부장=박상호)는 지난 9일 동국소식 제9호를 발행했다.

이번호에는 연등점등식, 제등행렬 등 부처님오신날 관련행사와 캠퍼스 차없는 날 실시, 입학시일정확정, 고 권오철교수의 미망인 강숙자 여사의 장학금 기증등의 내용이 실렸다.

회·전·무·대

못말리는 민심

○…대구참사의 여파로 민자당 정권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

이유인즉, 대구민들의 반민자 감정때문에 민자당내 대구계열 의원들의 집단탈당조짐이 보인다고.

성수대교때와는너무도 대조적인 방송가의 침묵은 반민자 감정에 더욱더 부채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이번 기회로 민심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새삼 느끼시길 바랍니다요"

컴퓨터가 비라면…

○…어떤 학우는 교수로부터 report 숙제만 받으면 심각한(?)고민에 빠진다던데.

이것은 다름아니라 학생들이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다가 설상가상 격으로 학교컴퓨터 시설의 부족으로 숙제할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쩔수 없이 미안한 마음으로 친구에게 report를 부탁하며 하는 말 "맞아 즉어도 좋으니 하늘에서 컴퓨터라도 쏟아져 내렸으면 좋겠다"

볼일 보기 힘들다~!

○…일천 명진인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화장실문제라며 한 학우 푸념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일천인이 쓰는 명진관에 남자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웃지 못할 비극이 아닌지.

불상뒤에는 화장실을 두는게 아니라며 스쳐가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고말이 근거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볼일보러 4층에서 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의 고충을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어떨런지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공중전화 박스앞에 늘어선 대기학생 행렬이 흡사 뱀을 연상시켜 끼여있는 학생이나 보는 학생들을 기겁시키고 있다던데…

이것은 전화대의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자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이와같은 현상으로 전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기다림에 짜증이 난 여학우 왈 "전화대수의 부족을 미워하되 전화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공 고

1995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제25집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1. 논문집 명칭:대학원 연구논집 제 25집
2. 투고대상:본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본 대학원 출신 시간강사, 본 대학원 조교
3. 원고매수
   인문사회계:200자 150매 이내(워드작성시 A4 용지 25매 분량)
   자연과학계:200자 100매 이내(워드작성시 A4 용지 20매 분량)
   * 그림은 가능한 한 크게 그려주시고 축소비율을 명기할 것.
4. 제출부수:디스켓 1장(아래아 한글 2.0버전으로 작성) 및 출력본 4부
5. 원고제출마감일:1995년 8월 31일
6. 발행예정일:1996년 1월 31일
7. 게재여부 통보:1995년 10월 중 개별통보
8. 제출처:대학원 교학부(전화 3093, 3094)
9. 원고는 별첨된 투고요령에 준하여 작성해 주시고,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응모하여 통과된 원고를 교정할 때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논문집에서 제외되므로 제작계획에 따른 교정일자를 꼭 지켜 주시어 논문집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5월 3일

대 학 원 장

일본 대정대학(동경소재)단기유학생 후보선발

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협회(AIEJ)(일본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단기유학제도에 따라 1년간 대정대학(자매대학)에 파견할 본교장학생을 선발합니다.

1. 인원:10명(서울7명, 경주3명)
2. 조건:학비면제, 왕복항공료·생활장학금(월10만엔)지급 (문부성지원)
   기숙사(사이다마켄캠퍼스-1시간30분 소요)혹은 동경내 자비하숙
3. 선발방법:시험을 통한 공개경쟁선발(서울, 경주 소속캠퍼스에서 접수 및 선발)
4. 응시자격:전학과(단, 대정대 개설학과 및 관련유사학과 전공자에 선발시 우선 고려 가능함) 대정대 개설학과:불교학과, 일문과, 사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5. 시험일시:5월18일(목) (서울, 경주 동시실시)
6. 시험과목:일어필기(30%), 일어회화(30%), 학교성적(30%), 면접(10%)
7. 접수기간:5월9일(화)-12일(금)
8. 접수처:국제부(3024,서울) 학생과(2054,경주)
9. 신청서류:지원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각1부)
10. 특전:대정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점교류협정에 의거하여 인정함.

국 제 부

하계 본교미국영어연수프로그램 참가자모집

본교 국제부에서는 미국자매대학인 매인주립대학(동부 매인주소재)의 영어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1. 과정:영어 토플반(영어와 미국문화 강의)
2. 기간:4주(7월31일, 월-8월25일, 금)
3. 수업시간:총 92-104시간(23-26시간/주)
4. 수업내용:읽기·쓰기·듣기·말하기·문법과 어휘력향상
5. 학습규모:한 학급당 8-12명
6. 모집예정인원:30명 내외
7. 소요 경비:총 약 ₩2,200,000
   내역:학비:₩700,000(10명이상시 학비의 10%감면)
   생활비:₩650,000
   항공비:₩850,000
8. 접수처:국제부(3024, 서울), 학생과(2054, 경주)
9. 접수기간:5월3일-5월31일(수)(신청시 현지예약금으로 $200을 선납해야 함)

특전)1.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본교교과 과목중 '해외영어연수(신설)3학점'을 인정할 예정임.
2. 어학연수과정에 이은 정규과목수강을 위한 입학특전이 있음.
3. 어학연수중 희망자에 한해 미국 동부지역관광 기회부여(경비자비부담:약$200)

국 제 부

전국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

제 7회

경쟁력있는 농업육성과 농민실익 사업을 전개하면서 세계 일류 협동조합은행을 지향하는 농협이 우리 나라 농업 농촌발전에 관한 전국 대학(원)생 여러분들의 참신한 논문을 현상공모합니다.

1. 응모자격 : 전국 4년제 대학(원) 재학생
2. 논 제 : 다음 4제 중 택일
   - WTO 체제하의 한국농업의 진로와 과제
   - 개방화 시대의 농업금융 활성화 와 발전방향
   - 우리 나라 전통식품의 산업화 현황과 과제 (전통가공식품 마케팅 활성방안 포함)
   - 농촌지역의 문화·복지사업의 효율적 전개방안
3. 응모요령 :
   - 응모매수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의 분량
   - 작성요령 : A4 용지에 워드프로세서 이용 작성 (요약문 2~3매 첨부)
   - 제출처 : 농협중앙회 문화홍보부 대학생논문현상공모 담당자 앞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우편번호 100-707)
4. 응모마감 : '95. 9. 30 (당일 우체국 소인분 유효)
5. 입상자 발표 : '95. 11. 1 (개별통지 및 농민신문 게재)
6. 시 상
   - 최우수작(1명) 상금 200만원과 상패
   - 우 수 작(2명) 상금 각 100만원과 상패
   - 가 작(5명) 상금 각 50만원과 상패
7. 기 타
   - 응모논문은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논문표지에 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 제출해야 함.
   - 응모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의 저작권은 농협에 귀속됨.
   - 자세한 사항은 문화홍보부 (02/397-5654)로 문의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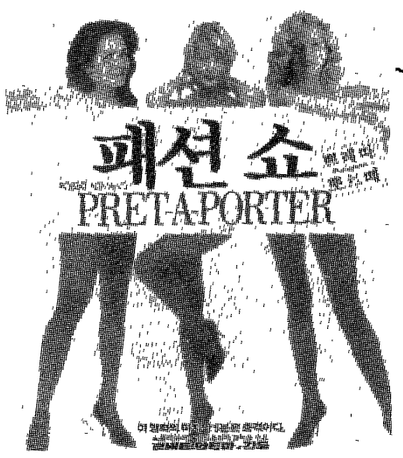
농협

영화의 패러독스 로버트 알트만 감독 '패션쇼'

'거짓 다큐' 양식으로 현대인 위선·속물주의 풍자

정 재 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로버트 알트만의 작품이 최근에 소개된 것은 헐리우드 영화계를 풍자한 '플레이어'라는 영화에서였다. 그 작품은 그 해 깐느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에는 일종의 금기가 작용하는데, 아카데미에서 수상한 영화는 흥행이 되고 깐느나 베니스등 유럽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는 흥행에 실패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우리 관객들이 미국성향에 이끌리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일 수 있다. 알트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이 작품의 결과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결코 대중성에 영합하지 않는 그의 영화 문맥이 얼마나 우리 관객을 움직일 것인지는 새로운 호기심 거리로 등장한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전통적인 줄거리가 없다.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이루는 극적 갈등과 그것의 해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영화엔 그런 드라마란 없다. 서로 꽉 맞물려 있지 않은 느슨한 에피소드식의 나열만이 있을 뿐이다. 미국영화의 흔한 공식인 '원맨히어로'도 등장하지 않는다. 주인공이 있다면 10여명의 비중있는 인물들이 다 공동 주인공들이다. 우린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관습을 터득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러한 고전적 형식을 거부한다. 굳이 형식의 문제로 풀어나간다면 이 영화의 형식은 가장 현대적인 형식, 즉 '영화적 관습'을 파괴하고 있는 형식을 구사한다.



일관된 극적갈등이나 원맨히어로가 등장하지 않는 '패션쇼'는 영화적 관습을 파괴하는 형식을 취해 환영을 깨고 현실을 재구성한다.

이 영화는 단 몇 일간의 패션쇼 현장을 마치 보도 카메라가 사건현장을 기록하듯이 그저 담담히 무대의 안과 밖을 스케치해 나갈 뿐이다. 극영화가 갖고 있는 허구성을 살아있는 현장감으로 대치하려는 의도는 극영화적 문법보다는 다큐멘타리 기법으로 재현되어 나간다. 이 영화는 철저히 올리버 스톤이 'JFK'나 '킬러'에서 구사하던 '거짓 다큐멘타리'의 양식을 보여준다.

영화를 표피적으로만 보면 화려한 무대의상과 날씬하고 요염한 모델들의 '볼거리'가 이 영화적 성격을 규정하듯이 느껴지지만, 이 영화가 지향하는 바는 모델계나 의상계의 실상을 알리고자 함이 결코 아니다. 그건 단지 영화의 피상적인 소재일뿐이지 실제 메시지는 대중소비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갖고 있는 위선과 '속물주의'를 풍자하고자 함이다. 그 방식 또한 심각한 현실의 부조리 고발이 아니라, 마치 그 상황을 즐기듯이 가볍게 지켜보지만 누구도 그 상황에 몰입할 수 없는 비판적 거리를 갖는 코미디인 것이다. 관객은 어느 한 인물의 시점에 동화되지 않고서 여러 인물이 벌이는 행동방식과 삶의 조건을 그저 지켜볼 뿐이다. 이 영화에서 현대인은 누구나 속물적이며 퇴폐적이고 또한 동정적이다. 알트만 감독의 메시지는 현대인을 둘러싼 사회 혹은 조직이라는 울타리인데, 영화 속에서는 패션쇼라는 현장과 패션계, 모델계, 잡지계, 언론계, 상류층 고객등의 울타리를 말한다. 이들이 하나가 되어 인간과 진실을 얼마나 왜곡시키는가 하는 점을 감독은 말하고자 한 것이다.

'거짓 다큐멘타리'양식은 인간과 사회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현대적 영화접근법이다. 종래의 영화가 '현실의 사실적 재현'을 미끼로 하여 그럴듯한 허구적 믿음을 강요하고 '환영(Illusion)'을 현실로 착각하게 하는 방식을 고수해 오지만 로버트 알트만이나 올리버 스톤의 경우 환영을 깨고 현실을 재구성하는 데서 오는 역사적 반성에 더 큰 각성을 부여하고자 함이 다른 점이라 하겠다.

대학문화

④ 안 들으면 그만?

지난 9일자 각종 일간지에 본교 이름이 직접 거명되어 나온 기사가 눈에 띄었다. 제목은 "동국대 여대생 45%교내서 성희롱 경험"이었다. 본교 여학생부쳐에서 7백 16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라고 하는데, 성폭행등의 직접폭력행위가 1.7%로 집계되고 신체일부를 성적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가 30.6%로 가장 많았다. 또 하나 여학생들이 성희롱으로 생각하는 행위중의 하나가 '술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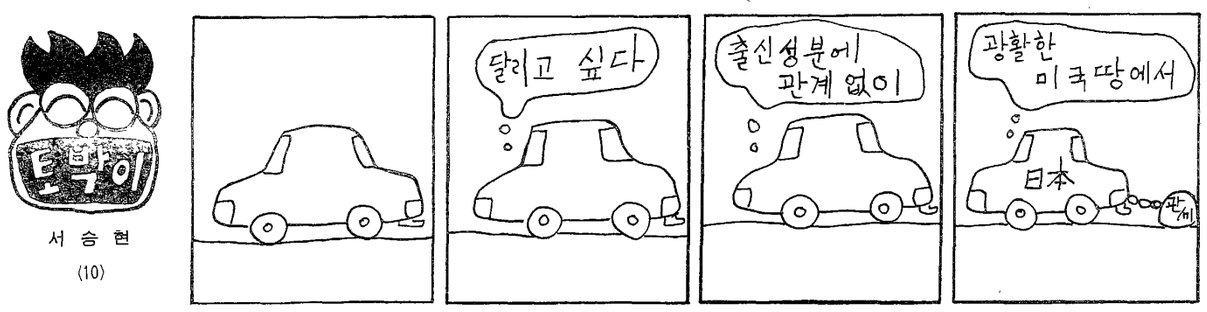
실제로 학기초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해도 술자리를 가지는 때가 많은데, 함께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강요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또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문제의식도 주목할 만하다. 특별히 피부로 접촉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이고 때로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원하지 않아도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것이다. "안들으면 그만"이라는 말을 하기엔 여학생들이 듣기에 불쾌감이 높다는 것을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난 사례는 아니지만 여학생 화장실 벽에 불특정다수의 여학생을 상대로 하는 음담패설이 쓰여있거나 아주 어쳐구니 없게도 도서관 장서에서 그런 내용을 발견할 때도 있다고 한다. 누가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행동인지 알 길도 전혀 없으므로 오히려 더 대담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인 듯 하다.

'친근감을 표현하는 말이라거나 행동일 뿐인데' 라든지 '몇몇의 행동이 과장되어 나타난 것 뿐'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억울한 피해자들도 많이 있다.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같은 캠퍼스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이라면, '나는 아니니까'라든지 '내가 당한 게 아니니까'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행동이나 언어들을 서로 규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하겠다. 적어도 "성이 롱이야?" 하는 식의 농담꺼리로 사용하고 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혹시 "저런 농담도 성희롱이야"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문화부〉



◇국문과 새내기 백일장 장원

나의 나

수필부문

명진관에 오르는 길 양쪽으로 벚꽃들이 하나 둘씩 피어나고, 그 꽃들의 빛깔과 내음으로 봄빛이 완연해질 무렵이었다. 내가 나 자신의 소리를 잃어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달은 건.

대학에 입학하여 새로운 환경에 처한 나는 낯선 장소와 사람들에 익숙해지려 무던히도 애써왔다. 술자리에서는 잔을 치켜들고 '완샷'을 부르며 어색한 콧소리의 '소양강 처녀'로나마 분위기에 휩싸이고 싶었고, 선배의 손에 이끌려 간 집회에서는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연방제 통일'을 따라 외치며 그것이 대학 생활이라고 생각했다. 선배와 동기와 빨리 친해지고 싶었기에 그가 누군가에 상관없이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넸으며, 되풀이한 자기 소개의 형식만도 백번이 넘는다.

그러나 이제, 선배와 동기들을 대하는 데에 있어 더이상 가슴 설레이거나 긴장되지 않아서 그들을 알았다고 생각한 순간에 날 조금도 알리지 못했음을 깨달은 것이다.

결국 나는 지금까지 나의 소리와 빛깔을 흉내낸 몸짓에 그쳤을 뿐, 나의 생각과 목소리는 하나도 담아내지 못한 것이었다.

지금 내 겉에는 나를 알아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이가 아무도 없다. 또한 남이 내게 취하길 바라는 행동을 하는 데에만 익숙해져 나의 생각과 자유는 어느덧 사라져 버린 듯 싶다. 어쩌면 타인과 다른 나의 목소리를 발하는 데에 필요한 용기조차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그러나 남과 다른 소리를 내기가 두려운 지금에 내가 나 아닌 어느 것도 도리킬 수 없음을 깨닫는다. 타인의 몸짓을 아무리 흉내내고 있다 해도 결국 그것은 나의 것이므로 내가 아닌 나라해도, 서글프고 초라한 나의 모습도 보듬고 감싸야 할 자신인 것을 아프게 가슴에 아로새긴다. 그 솔직하고도 자명한 사실은 내가 모든 사람을 그대로 간직함과 같은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솔직한 나의 모습 그대로서 살아가고 싶다.

남을 닮은 모양이 아닌 감정만들기와 소리 내기, 서툴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나만의 그것으로 좀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나를 지어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여느 누구의것도 아닌 나 자신의 나이므로.

만개한 여러 꽃의 빛깔과 풀내음으로 완연한 봄의 모습을 느끼며, 나 또한 나만의 소리와 빛깔을 지어내고 싶어진다.

박 은 미

시부문

시인

-굿이 보고싶습니다

고 수 경

소설가 구보씨, 시인은 정말로 무당의 후예입니까.
시인은 정말로 사회의 비리를 보면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한바탕 시원한 씻김굿을 벌리곤 하는 것입니까.
나는 아직 굿을 보지 못했습니다. 굿판에 모여 있는 구경꾼만 보았을 뿐, 구경꾼들은 맞추지도 못하는 어깨 장단을 맞춥니다.
구보씨, 나는 굿을 보고 싶습니다. 나도 구경꾼의 일부가 될줄 알지마는 가슴 후련해지는 씻김굿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구보씨, 무당은 잡귀를 쫓지 못하고 시인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시인은 고래고래 외치는 소리는 단순한 구경거리일 뿐, 이제는 무당도 시인도 굿도 없고 구경꾼만 있습니다.
그래도 구보씨, 나는 굿을 보고 싶습니다. 달을 보고 짖는 한 마리의 개가 될지라도 신명나게 벌여지는 시인의 굿이 보고 싶습니다.

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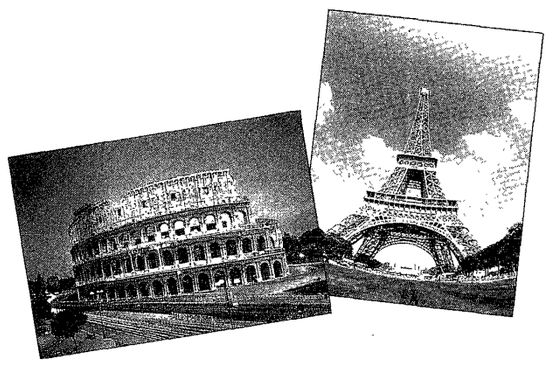
시대정신

▲최근 일본에서는 '아시아 공생의 제전'이라는 사실상 전쟁찬미 대회를 계획하고 있어 오쿠노 세이스케 의원의 망언에 이어 또다시 동아시아 나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일제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우리는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에 일본에서는 겨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큰소리를 칠지도 모른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미래의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이다.

▲5월이면 은 국민의 관심이 광주로 집중된다. 그것은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 때문이다. 80년대 이후 가장 뜨거운 정치적·정서적 쟁점인 광주 민중 항쟁은 이제 15돌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학살자들에게는 공소시효 마지막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15년이 지난 지금의 광주는 광주항쟁에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한 대학강단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광주학살 주범으로 주목받은 사람들이 있는 정당에 가입하고, 오월단체들의 주도권 다툼, 보상으로 고개숙인 사람등으로 인해 이제 광주정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오는 23일-24일 진상규명·책임자 처벌등 본질과 관련한 정치적·법률적 해결이 한계에 달한다면, 학문적으로 재조명하며 본질과 진실에 접근하려는 국내외 학자들의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린다고 한다. 그리고 광주시장에 재야에서는 단일후보를 내었고 보상을 거부한 사람들이 아직 존재하는 한 광주정신은 아직 살아 있다. 한 시대정신은 과거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덮어버린다고 사라질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는 일제 친일세력들에 의해 군사정권의 군화발에 의해 일그러져 있다. 김영삼 정부는 역사에 맡기자고 한다. 군사정권의 수뇌들은 지금 피눈물로 울부짖는 광주민중들을 뒤로 한채 화려한 휴가를 즐기고 있다.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아왔다.

역사는 되풀이 될 수 없다. 역사에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광주항쟁은 정의였고 신군부의 집권은 불의인 것은 누구도 의심치 않을 것이다.

〈민〉



레몬15 · 체리15
탄생 1주년기념 행운 대잔치
야호, 유럽행 프리티켓의 주인공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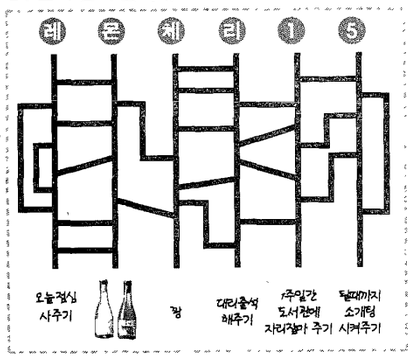
신세대가 팍팍 밀어주는 상큼한 패션주-
진로 레몬15 & 체리15이 탄생 1주년을 기념하여...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푸짐한 행운잔치를 마련합니다.
기회는 찬스-! 유럽배낭여행의 행운도 팍-잡으시고
퀴즈푸는 재미도 만끽해 보세요!

행사1 퀴즈) 아래의 사다리타기에서 레몬15,체리15에 이르는 행운의 글자나 숫자는?
상품 : 진로상 10명 - 유럽배낭여행 프리티켓 (왕복항공권+유레일패스)

행사2 감각세대끼리만 통하는 - 레몬15이나 체리15의 제품상표를 보내주세요.
상품 : 레몬상 50명 - 무선호출기 각1대
체리상 200명 - CD 각1장

■ 응모요령: 두가지 행사 중 하나를 선택, 제품상표나 퀴즈의 정답을 관제엽서로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각각 행사 동시 참여 가능) ※문의전화:520-3249
■ 보내실 곳: 130-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8-3 (주)진로 마케팅팀 〈레몬15〉행사담당자 앞
■ 마 감 : '95년 5월 1일 ~ 5월 20일 (20일 당일 소인 유효)
■ 당첨자 발표 : 스포츠서울 5월30일자

친구들과 함께 즐기세요



株式會社 眞露